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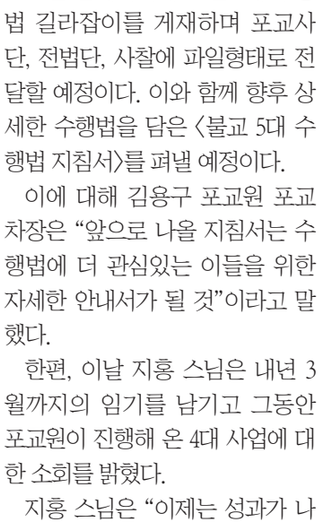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25일)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연화화생(蓮華化生) '코로나19' 라는 유래 없는 재앙 속에서 시절은 7월의 폭염을 더한다. 아미타불의 정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생각나는 시절이다. 염원을 이룬다면 우리는 지금 연꽃 속에서 왕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재앙과 무더위가 팔만법문을 무색케 하는 시절이지만 어김없는 계절의 인연은 피워야 할 꽃을 피우니 도량마다 분홍빛 연꽃이 도래한다. 연꽃이 피고 지는 동안 다시 법문 한 줄씩 붙잡고 연꽃 속에 머물며 재앙과 더위를 떠난다. 사진은 7월 9일 현재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조계사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참선부터 지계·보살행까지 시대 맞는 수행 지침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7월 6일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을 발표했다.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조계종 포교원이 그동안 강조해 온 5대 수행법인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다섯 가지 수행법을 근간으로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천 덕목을 소개하고, 일일수행을 안내하는 책자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에 대해 "불자라면 당연히 수지해야 할 계율에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경, 염불, 참선과 대승불교의 근간인 보살행을 합한 것"이라며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며 다양한 불교전통이 있음에도 그동안 지침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수행의 종교로서 정체성을 만드는 첫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율과 보살행에서 이 점이 두드러진다. 계율 수행에서 삼취정계(三聚淨戒) 개념을 적극 활용해 오계의 경우 불살생계 20가지, 불투도계 18가지, 불사음계 17가지, 불망어계 20가지, 불음주계 15가지 등 총 90가지 실천항목을 제시했다.

또 보살행에서는 '사회적 보시'와 '사회적 실천' 개념을 통해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보여준다.

지홍 스님은 5대 수행법에 계율과 보살행이 포함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계율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구속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길라잡이를 보면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 원인을 환경 오염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지구와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계율이 확장될 수 있다. 간경 수행이나 염불 수행,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계율 수행만큼은 기존 범주에서 사회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보살행 역시 그동안 한국불교서 수행법으로 구성하지 않았는데 대승불교 중심 수행법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5대 수행법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PDF 형태로 포교원 홈페이지에 이번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게재하며 포교사단, 전법단, 사찰에 파일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상세한 수행법을 담은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를 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용구 포교원 포교차장은 "앞으로 나올 지침서는 수행법에 더 관심있는 이들을 위한 자세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홍 스님은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남기고 그동안 포교원이 진행해 온 4대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홍 스님은 "이제는 성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것들이 많다. 개인적인 이유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한글 의례집 발간 사업, 5대 수행법 지침서 발간 사업, 불교성전 편찬 사업, 비대면, 온라인 전법 포교 시스템 구축 등 포교원이 기치를 건 사업 모두 향후 포교원이 끝까지 이어가 완성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분황사 설계안 첫 공개… 불사 본격화

조계종, 분황사 설계보고회 개최

물라상가 印 부다가야 보유부지
대웅전 · 숙박시설 · 보건소 조성돼
한국 전통 건축양식 바탕한 설계
현지 인허가 후 11월 착공 목표로



조계종이 공개한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감도. 대웅전을 비롯해 숙소시설, 보건소가 들어선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이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이 본격화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인도 분황사 설계안 발표회를 갖고 건축 조감도와 불사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설계안은 ㈜금성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조계종 총무원, 인도 현지법인인 물라상가가 함께 10여 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협의된 결과물이다.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성 위치는 인도 물라상가의 부다가야 보유부지로 건축면적은 총 1,302.88㎡, 연면적은 총 1,741.56㎡다. 부지에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 3동이 들어선다. 대표 건물인 대웅전은 단층으로 면적 433.84㎡, 연면적 262.26㎡으로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한국 사찰 건축물 중 보기 드문 회랑식 법당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숙소 건물은 2층으로 지어지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지붕 구조로 건립된다. 규모는 74.93㎡, 연면적 964.45㎡이며, 1인실 15개실 · 2인실 6개실로 구성된다.

부다가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공간인 보건소는 진료대기를 위한 넓은 로비와 복도를 중심으로 유동적 진료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규모는 연면적 514.85㎡으로 1층에는 진료소와 환자 대기를 위한 로비가, 2층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2인 숙소 5개실이 들어선다.

단순히 한국인 순례자의 신행과 숙박을 책임지는 도량이 아니라 보건소를 건립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 시설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인도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낙후돼 있고, 부다가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의료봉사자들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 스님들이 참석해 사무소의 설계 설명을 듣고 보완할 점을 제시했다.

원행 스님은 "팔작지붕 일변도인 전각들의 지붕을 맞배지붕, 우진각 등 전통 양식을 다양하게 도입해 달라"면서 "건물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미(鴟尾,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가 좋아야 한다. 해인사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불명(佛名) 설매(73) · 연취(67) 보살이 50억 원을 기부함에 따라 본격화된 인도 분황사 건립불사는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 · 직원 화합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기획] 표류하는 나눔의집
상 본질 벗어난 감정대립
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눔의집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불교계 안팎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부제보 직원들과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 · 운영진 간의 갈등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운영상 미흡이 확인된 가운데 내부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의 개선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적인 여론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사건건 의혹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청이 특별지도점검에 이어 추가적으로 민간과 합동조사에 착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태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따른 부담감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록 내부제보 직원들의 도 넘은 의혹 제기나 월권행위 등이 지나친 측면이 있더라도, 시시비비를 따지고 대립하기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 불교계 복지법인 관계자는 “이미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 사태수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제보 직원들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에서 논란이 재생산돼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능에 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와 이미지가 가장 큰 기반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안팎의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핵심은 법인과 시설 각각의 운영시스템에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운영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부제보 직원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객관적 지위의 인사를 운영에 직접 참여시켜 상호 견제를 통한 운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 재확산돼자 경기도 이례적 추가 조사
불교계 안팎 전문가들 “내부갈등 해소부터”
외부인 이사 영입… ‘후원금운영위’도 대안

우선 법인 이사회의 경우 공익이사 및 외부이사 추천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른 식견과 역사의식, 객관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법인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눔의집의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필요할 시 내부제보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영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시설의 경우 ‘후원금 운영위원회’ 등 미비하다고 지적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별도의 운영조직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나눔의집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의혹을 가진 직원이 직접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은 물론 이를 통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등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변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부 직원들의 사회복지 전문성 수준을 감안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불교계 복지법인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전 관계자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후원금이나 보조금 사용, 시설 운영 전반사항은 관련 법과 규정, 지침에 의거해 대단히 세밀한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다”며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것보다 아예 권한과 책임을 주고 운영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 사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입장문이나 비판성명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실제 감사결과 횡령 등 문제가 없었고 사회복지 규정은 계속 강화돼 왔기에 운영 미숙으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부제보 직원들이 사회복지 현실을 얼마나 아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후원금 부적정 사용,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부적정 사용, 후원금 전용계과 관리 부적정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등 12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광주시청 감사결과와 동일하게 횡령 문제는 없었다.

나눔의집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운영위원회 재구성 등 시설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비구니 수행 · 포교 이끌어 주십시오”

전국비구니회, 7월 9일
원로 추대법회 봉행해

적조 · 명우 스님 등 7명 추대
명사추대품계위 회의도 열려
“비구니 전통 따라 명사 추대”



전국비구니회는 7월 9일 법륭사서 제2차 원로추대식을 열고 적조 · 명우 · 도문 · 육문 · 성일 · 영운 · 묘순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한국 비구니 전통과 위상을 대표하는 비구니 원로 스님 7명이 비구니회 원로회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9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웅전에서 제2차 원로추대식을 열고 적조(금륜사), 명우(성심사), 도문(석남사), 육문(법주사), 성일(신흥사), 영운(백흥암), 묘순(삼선포교원)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비구니회 원로회는 경순, 법운, 경희, 정륜, 경심, 성타 스님 등 명예원로의원 6명 스님과 1 · 2차 추대 원로의원 25명 스님을 원로회에 모시게 됐다.

원로회 의장 명성 스님은 수석부회장 수현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비구니회를 이끄는 스승의 자리에서 비구니들이 청정 수행을 이어가고 홍법포교에 전념하도록 경책하고 길을 제시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향기로운 가르침을 펼쳐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모시는 말씀에서 “전국에는 원로의원 자리에 오르실 많은 비구니 어른 스님들이 계시지만 회칙에 따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구니회는 모든 원로 스님들이 앞으로 본사와 종단을 통해 명사의 법계에 오르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12월 명사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추천과 관련 비구니 전통에 따라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원로회 의원 모두가 자격을 지닌다.

전국비구니회 명사품계위원회는 이날 원로추대식에 이어 회의를 열고 명사 추대 지원자 스님들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명사 추천절차의 의미에 대해 “명사품계위원회는 원로회 의장 명성 스님께서 종단 법계절차를 준수하되 비구니의 전통에 따라 명사가 추대돼야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신 데 따라 구성됐다”며 “원로의원으로 모신 것은 곧 명사로까지 모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자격 및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공정한 추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명사추대 지원자 심사표’에 따라 품수자격과 가람수호 · 대중외호, 수행, 교육, 포교 · 사회복지 · 행정, 전국비구니회 회장직 등 6개 항목의 객관적인 평가수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서는 제정을”

원행 스님, 국가인권위원장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그동안 불교계가 주장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하겠는가”를 물은 원행 스님은 “부처님은 계급을 타파하는 등 교리적으로 평등을 중요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종교의 우려가 있지만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문제는 차별금지 논란의 본류가 아니므로 차별금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인권위원회 차원의 법안 발표와 더불어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이 이어졌다.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89%의 국민이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면서 “국회에 수시로 방문해 대정당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월 9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에 앞서 정의당과 불교,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4대 종교계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의지를 모았다.

정의당(대표 심상정)은 7월 8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종교계 간담회를 열고 각 종교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정의적 합의”라며 “조계종을 비롯해 불교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차별금지법’을 입법발의한 상황이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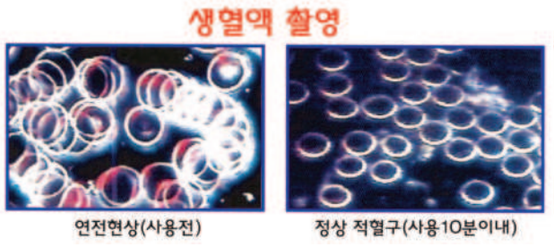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뇌파 측정촬영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통증이 그냥 사라지며
▶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의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 저녁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 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아침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하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치약만 사용했을 뿐인데 비누는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 정상화에 의한 건강이 유지되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일 것입니다.

“한국전 당시 통도사, 육군야전병원이었다”

통도사, 관련자 新증언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육군 야전병원으로 활용됐다는 새로운 증언들이 공개됐다. 앞서 발표된 ‘용화전 복장물’, ‘대광명전 내 군인 낙서’와 함께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 분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7월 6일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을 확인하는 증언 자료들을 공개했다. 증언자 면담은 6월 29일과 7월 1일 증언자 자택 및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 사회과장 정대 스님이 동석했다.

증언 자료에는 ‘위생병의 통도사 내 육군병원 목격담’부터 ‘통도사 육군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도구 발견’까지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이 담겼다. 최근 발견된 대광명전에 낙서한 군인 중 한 명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전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한 국가유공자인 박기수 씨(부산 동구, 88)는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이었다”고 확언했다.

박 씨는 전쟁 당시 학도병 1기로 지원해 제31육군병원 본원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통도사 경내에 제31육군병원 분원이 정확하게 있었다. 군수물자를 화물트럭으로 운송했으며 당시 정



박기수(88, 제31육군병원 위생병)

통도사 경내 병원 분원 존재
정양원 분원장 ‘중령 김승곤’
군수물자 전달… 공비 약탈도

양원 분원장의 이름과 직위가 ‘김승곤 중령’이었다”고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어 “통도사 분원에 정기적으로 군수물자가 전달됐으며, 군수물자를 강탈하기 위해 공비들의 공격이 잦았다”고 밝혔다.

최근 발견한 대광명전 낙서 당사자로 보이는 증언도 나왔다. 故 고재석 씨의 자녀 고성록 씨와 고해록 씨는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에 입원했었고, 병이 악화돼 통도사에서 전역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대광명전 낙서 중 ‘통도사 잘 있거라’가 부친의 글씨라고 주장했다.



고성록 · 고해록(故 고재석 씨 자녀)

대광명전 낙서, 아버지가 써
지병 악화돼 통도사서 전역
치료받은 군인 확인한 증언

고해록 씨는 “기사를 통해 아버지의 글씨체를 확인했다. 아버지께서 한학에 조예가 깊으셔서 족보 번역이나 작성하는 일을 하셨는데 자주 도와드려 아버지의 필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통도사를 다녀왔다고 했더니 어버지께서 ‘그곳에서 제대를 했다’고 말씀했다”며 “대광명전 낙서는 제대 통지가 오고 마음이 들떠서 썼던 것 같다”고 밝혔다.

통도사 측은 “당시 육군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복귀와 전역을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을 통해 통도사에서 치료받은 군인 중 일부가 통도사



김용길 씨(86, 해동중 재학생)

설암 스님과 함께 통도사 방문
화엄전, 환자 병실 사용 목격
병사들 불상 올라타는 등 훼손

서 곧바로 전역할 수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국방부 기록에도 이 같은 전역 사항이 기록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도사 내 전각이 육군병원의 병실 및 행정사무실로 활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언자 김용길 씨(부산 연제구, 86)는 “1951년 당시 해동중학교에 재학중이었고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설암 스님과 함께 육군병원이 설치된 통도사를 방문했다”며 “보광중학교가 현 성보박물관 위치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검을 들고 출입시켜주지 않아 설암 스님이 상황을 설명해 줘 들어갈 수 있었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화엄전은 환자 병실로, 관음전은 지휘 통제실로 활용되는 등 각 전각이 군인들로 가득 찼고, 지장전은 교회로 활용되는 등 훼손이 심각했다. 대광명전 불상을 삐딱하게 돌려놓거나 올라탄 군인도 있었다. 군인들이 철수한 후 경전 및 중요 역사 자료가 불에 탄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축 과정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도구가 발굴됐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송천 스님과 권동현 박물관 관리직원은 “1994년 5월경 신축 박물관 토목 작업 중 박물관 정면 정원 일대에서 링거용 호스와 주사기, 약물병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도구를 발견했다”며 “당시에는 의료도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성보박물관 우측 한 모퉁이에 묻고 터 작업을 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향후 통도사는 근거자료와 사료를 모아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국장 지범 스님은 “호국불교의 역할을 한 통도사의 역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며 “국방부에서 회신이 없고 관련 부서가 없어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국방부 법사단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도재를 봉행해 호국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찰 ‘현판 · 주련’ 첫 전수조사… 통합 관리 나선다

문화재청, 오는 12월까지 DB 구축 추진

사찰에는 현판, 주련 등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다. 전각과 함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지만,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관리 소홀로 보존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이 사찰이나 궁궐, 관아 등의 현판, 주련, 비문, 묵서 등 부속기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 관리에 나선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 622건(국보 87건, 보물 535건)에 부속기록물 1,485개, 관련기록물 4만 579개를 최초로 전수조사해 지난해 12월 수집을 완료했다”면서 “오는 12월까지는 관련 자료들의 목록화(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7월 9일 밝혔다.

부속기록물은 현판 · 주련 · 비문, 묵서 등으로 건조물의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의 행적, 종교 의미 등을 담아 기록한 것으로 건물과 함께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건조물의 인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중한 유산이다.

지금까지는 건조물 위주로 보존 · 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방문자들은 현판이나 주련, 비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부속기록물 1485개(△현판 773개 △주련 419개 △비문 159개 △각자 85

국보 · 보물 건조물 622건 조사
불교 문화재 77%로 절대 다수
부속기록 관리 소홀 개선 전망

개 △묵서 49개)의 문양, 바탕색과 글자색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마쳤으며, 번역작업까지 완료했다.

또한 사진과 공문서, 고문헌, 보고서 등 관련기록물 4만 579개(△사진 1만 7692개 △공문서 1만 6867개 △보고서 2093개 △고문헌 1143개 △기타 2784개)도 수집해 통합 이력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대상 문화재 622건 중 불교문화재가 482건으로 전체 대상 중 77.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궁궐과 관아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다.

조사 과정에서 부속기록물의 하나인 주련의 누락, 부착 순서 오류 7건을 확인했고, 현판과 주련의 색상 · 문양 · 보존상태 등도 목록화했다.

조사 부속기록물 1485개 중 현판이 52%(773개), 주련이 28%(419개)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현판은 테두리가 있는 것이 436개며, 이중 화문(花紋, 꽃무늬)이 30%로 가장 많았다. 현판과 주련 모두 바탕색과 글자색은 흑색 바탕에 백색 글자(611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천자료 확보가 가능한 현판, 주련, 상량문 등 1177개에 대한 번역도 이뤄졌다. 이 중에는 현판이 743개로 제일 많았고, 주련이 419개로 뒤를 이었다. 현판의 경우 전각명이 262개(33.9%)로 다수를 이뤘다. 주련의 경우에는 게송이 250개(59.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불교문화재에서는 주련의 60%가 게송임이 확인됐다.

향후 문화재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건조물문화재의 부속 · 관련기록물 4만 2천여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며, 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판 · 주련 · 비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면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 연구와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주요사업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 작업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조물과 부속 · 관련기록물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에 부속기록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조사 시 부속기록물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수리토록 할 것”이라며 “주기적 기록물 조사와 등록 등 체계적인 문화재보존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광주 코로나19 재확산 사찰 아닌 방문판매 ‘시초’

중대본, 7월 8일 발원지 공개
여론 뭇매 불교계, 유감표명

불교계 첫 감염사례이자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로 지목됐던 ‘광륵사 관련 감염사태’가 애초 광륵사가 아닌 금양오피스텔 방문판매 모임이 발원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월 8일 브리핑에서 ‘광륵사 관련 집단 감염’을 ‘방문판매 모임 관련 집단 감염’으로 분류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최근 역학조사 결과 광륵사 관련 첫 확진자가 사찰 방문이 아닌 6월 중순 방문판매업체 관련 모임으로 인해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도 공식 프리핑을 통해 “광주 코로나19 재확산의 최초 감염원을 ‘금양오피스텔’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륵사 발 집단 감염’ 등 용어로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지로 오인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불교계는 방역당국의 대처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이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록 광륵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이기는 하나 그동안 광륵사발 지역사회 감염으로 방역당국이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마치 사찰이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지였다는 식으로 인식돼 왔다”며 “충분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브리핑을 진행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방역당국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광주불교계도 이번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은 공지 문자를 통해 “광륵사가 최초 발원장소로 지목되면서 지역 불교계의 우려는 물론, 오랜기간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신 사부대중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라도 정정이 되어 다행스럽다”며 “최초발원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공식명칭이 변경된 만큼 각 언론사에서도 ‘코로나 광주불교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어려운 국난의 시대”라며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시대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줌머족 인권보호 위한 삶 목숨까지 위협”

난민 불인정 결정 통보 받은 라트나 재한줌머인연대 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에서 줌머족 인권탄압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져요. 한국정부가 저를 외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한줌머인연대 회장 라트나 차크마씨<사진>는 최근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받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출신의 줌머족이다. 줌머족은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내에서 숱한 인권탄압 및 박해로 고통받아 왔다. 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서 줌머족 인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한줌머인연대도 그 중 하나다. 줌머족이 탄압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이다. 힌두교인이 대다수인 방글라데시에서 줌머족은 전통종교인 불교에 대한 신앙을 이어왔다. 상당수 난민들이 스리랑카와 태국, 한국 등 불교국가에 분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한줌머인연대는 불교를 믿는 줌머인 모임이라는 점에서 한국 불교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정치조직이다. 본국 내 줌머족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등의 정치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트나 회장의 난민신청 탈락이 곧 신변 위협과도 직결되는 이유다.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은 난민불인정의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줌머인연대 측은 “재한줌머인연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라트나 회장은 줌머인연대 회장 소임을 맡기 전부터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인권탄압 중지’ ‘치타공산악지대 자치권 보장’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해 왔다. 2018년 회장직을 맡은 이후에는 줌머족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집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라트나 회장이 치타공산악지대를 떠난 것은 불과 14세 무렵이다. 다른 줌머인들과 다른 점은 본국을 떠난 그가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뒤 스님 신분으로 태국 등지를 떠돌다 한국으로 왔다는 점이다. 그는 “처음 한국에 온 것이 2008년 무렵이었고 그때는 스님 신분이었다”며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한달 가량 머물렀는데 집에 수시로 군인들이 찾아오는 등 심각한 감시와 위협을 겪은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한달이지만 그때 겪은 두려움과 공포는 잊혀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다시는 치타공산악지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정착을 위해 승복을 벗었다.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가자 신분으로 돌아가 천막기술과 용접을 배워 공장에서 일했다. 부모님과 여동생 등 가족이 있기에 본국의 줌머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도 멈출 수 없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재한줌머인연대 소속으로 현지 줌머족의 위험 상황과 사건 사고, 정치지형의 변화 등을 체크하고 연구했다. 치타공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사태들에 대한 인권보고서와 현지 언론보도를 검토하고 전세계 줌머난민과 이주자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줌머인연대 측이 라트나 회장의 귀국시 구속, 살해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다.

라트나 회장은 6월 23일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동시에 그를 지키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난민인정 탄원운동이 진행 중이다. 그가 속해 있는 재한 이주민법당 연합체인 다문화불교연합회도 6월 24일 평택 마하위하라사원(스리랑카, 주지 담마끼띠)에서 열린 회의에서 라트나 회장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며 마음을 보탰다.

라트나 회장은 “저를 위해 나서주신 각국 스님들은 물론, 한국 불자들과 전세계 줌머연대에 감사드린다”며 “부디 난민지위가 인정돼 제2의 고향 한국에서 줌머인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간절함을 전했다.

줌머족은?

좀머족은 방글라데시 동남부에 위치한 치타공산악지대의 선주민으로, 11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방글라데시 영토이지만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뱅갈족과는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모든 문화가 다르며, 특히 줌머족 대부분이 불교신자다. 방글라데시는 줌머족의 문화와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줌머족에 대한 살해, 폭행, 납치 등 박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 전세계로 도피한 줌머족들을 중심으로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이 진행 중이다. 김포에 터를 두고 있는 재한줌머인연대는 상당수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98명) 및 난민신청자다.



거리에서 줌머족 상황을 전하는 라트나 씨.



‘간화선 중흥’ 대작불사 관심을

간화선 세계화와 선풍 진작을 위한 재가불자 모임이 탄생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산하 재단법인 선원수좌문화복지회(대표이사 의정)는 7월 4일 양평 용문사에서 후원조직 선주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모인 300여 재가불자들은 현재 후원회원으로 구성된 3000여 불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했다. 이들은 전국선원의 수좌 스님들의 후원 뿐만 아니라 한국 선 전래 1200년을 맞아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2차 불사에 돌입하는 문경세계명상마을 불사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의정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간화선 중흥은 불교 중흥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촉발된 인류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 중심이 될 문경세계명상마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평 용문사=노덕현 기자

“POST코로나, 불교 죽음교육으로 대비”

이범수 동국대 교수, 한국종교교육학회서 강조

“코로나 사태의 진정한 극복은 심층생태주의로 인간을 초월한 공동체 구성에 있다. 많은 이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영성이라는 새로운 다리를 놓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종교가 지닌 영성을 활용한 인류 초월 생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사진>는 7월 10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청호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죽음과 삶, 종교와 교육을 통해 만나다’에서 코로나 시대 진정한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죽음교육은 코로나 19의 위기를 사는 중차대한 시기,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런 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간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수평적 사고까지 이어져 진정한 코로나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죽음교육으로 생태계 순환을 새롭게 인식하는 생태영성교육, 모든 생명의 평화와 조화를 이끄는 생명존중교육과 채식 실천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죽음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죽음의 본질을 직시하고 죽음을 넘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며 “지구와 관련된 생태윤리를 영적 수련과 결합하여 말의 차원이 아닌 행동과 운동으로 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직학회장의 기조강연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부터 장정태 삼국유사연구원의 ‘한국 민속종교에 나타난 죽음인식’, 문선영 선문대 교수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이해와 교육적 함의’, 전한성 인천대 교수의 ‘현행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죽음교육 양상 고찰’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형철 교수 · 함께하는마음재단, ‘불이상’ 수상

제35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 발표





사진 왼쪽부터 강형철 교수, 함께하는 마음재단 홈페이지.

불이회는 7월 7일 연구분야 수상자로 강형철 동국대 초빙연구교수, 실천분야 수상단체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대표 지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강형철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은정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이회는 “범어 원전과 문헌학에 대한 견실한 훈련을 바탕으로 독자적 사고를 하면서 외국어 실력을 두루 겸비한 소장학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4차 산업과 불교를 접목한 학제적 연구 등 불교학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연구방법론 개척을 시도했다”면서 “앞으로 한국불교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천분야 수상단체인 함께하는마음재단은 1990년부터 후원회를 시작으로 1997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다. 대표지도 스님을 중심으로 노인, 지역, 자활복지 등 2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회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신행실천을 순환시키고 특히 불자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불교사회복지의 대중화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는 단체”라면서 “자비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 기여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연구원 채용 공고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불교학 및 대행선의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자 격 불교학 또는 선학 관련의 전공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증 사본 1부 2) 이력·경력서(사진 첨부, 본인 사인) 1부
3) 관심분야 연구계획서 1부
* 채용인원 0 명
* 서류제출기한 7월 25일까지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고
* 근무조건 주 3일 (매주 일요일을 포함한 그 외 2일의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 주 업 무 1) 연 1회 학술대회, 연 4회 계절 발표회 준비
2) 연 2회 『한마음연구』 논문집 발간 업무 : 논문교정 등
3) 기타 연구원 업무 동참
4) 연 1편의 논문 발표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최종 결정함
* 월급여액 내부규정에 의함

※ 제출 e-mail : ds7788@hanmaum.org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내 대행선연구원
※ 전화번호 : 대행선연구원 031) 470-3276, 3277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화려한 색채로 만나는 명상 세계

불교명상가 현지영 작가 개인전

은암갤러리서 7월 25일~ 8월 22일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觀
명상 수행의 과정을 담은 20여 작품
"힘든 시기, 쉼을 줄 수 있는 전시로"


현지영 작가의 개인전 '명상-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시간, 내 마음을 볼 뿐'이 7월25일~8월 22일 창원 은암선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불교 명상의 정의이다. 관(觀)을 통해 사라짐을 마주할 때 생겨나는 지혜는 꽃 보다 아름답다. 명상을 통해 만나는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불교명상가이자 서양화가인 현지영 작가가 직접 수행하고 바라본 명상의 세계이다.

현지영 작가의 개인전 '명상-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시간, 내 마음을 볼 뿐'이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창원 은암선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에서 열린다.

현 작가의 작품 주제는 명상이다. 작가는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 고통의 사라짐을 마주했으며 수행의 가치를 작품을 통해 설명했다.

현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색상과 구도가 복잡한 작품과 단순 명료한 선(禪)적인 작품이다. 번뇌가 가득한 마음 상태와 알아차림을 통해 단순해진 마음, 두 가지를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했다.

현 작가는 "작품에 보면 닭 그림이 많이 나온다. 아버지가 닭띠셨고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망상 속에 아버지가 자주 떠올라 작품에도 나오게 됐다. 사랑을 많이 주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수행을 통해 보면 잡념인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현재 속에서 분별심 없이 알아차림하고 대상을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작품은 특히 선명한 색채로 뚜렷한 색감을 보여준다. 선명하고 명료하게 아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현 작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호흡명상 중에 고요한 '숨' 한번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크게 느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명상의 편안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7월 25일 오후 2시 은암문화재단 내 은암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며 작품 판매 수익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작품은 20여 점이다.

현지영 작가는 창원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활발한 작품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04년 대우갤러리, 2012년 갤러리 팔레 드 서울, 2016년 중국 베이징, 2017년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8년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2011년 중국 상해 아트페어, 중국 광저우 계림미술관 한중일 교류전, 2012년 중국 사천성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제, 2015년 스위스 취리히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출품했다.

은암문화재단은 "한 달간 열리는 이번 작품 전시는 발전과 성취가 중요한 현대인의 삶에 명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작품을 통해 현대인은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보는 명상을 마주하고 삶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를 만날 것이다"고 말했다. 055)325-4008

행복드림센터, 미혼부모 가족 사업 나선다

행복드림센터 7월 3일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협약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고 미혼모가족의 위기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센터장 심산)와 (사)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대표 김도경)는 7월 3일 행복드림센터에서 '미혼부모 및 영유아 행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와 (사)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는 7월 3일 행복드림센터에서 '미혼부모 및 영유아 행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행복드림센터와 (사)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는 영유아 유기 예방과 미혼부모 지원 사업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특히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드림센터는 미혼부모의 생계지원과 긴급일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강구하며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문제와 육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회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센터장 심산 스님은 "미혼부모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간으로 행복드림센터가 잘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이번 업무 협약은 미혼부모를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경 대표는 "대부분 미혼모 지원과 단체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다"며 "협회는 2016년부터 부산경남지역 미혼모 모임을 시작했고 지역 내에서 미혼모가족에 적극 도움을 줄 단체와 기관을 찾고 있었다. 지난해 인연을 맺게 된 행복드림센터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미혼모 지원 현실을 반영할 때 매우 가치있는 시설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혼모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현실적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미혼모 회원 2,7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단체로 미혼모 가족의 위기 지원과 인식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는 2019년 4월 29일 개소해 영유아 유기예방에 앞장서며 15건의 유기예방과 1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행복드림센터 환경개선에 나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국불교조계종, 순국선열 위령재

6월 24일 총본산 법전사서 봉행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6월 24일 제43회 병자호란, 임진왜란,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육탄10용사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는 코로나19 관계로 법전사 신도회(회장 김영옥)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모법문으로 진행됐다.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 법륜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령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한다. 이들을 천도해 이고득락토록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령재를 봉행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혜륜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들을 제도하며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참상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애족 애국정신을 기르고, 나라사랑 충성심을 일깨워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과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앞으로 경건하고 더욱 알찬 국민적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추모기념 법문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재소자들에 시원한 얼음물 전달해요"

전주교도소 교정協, 얼음용 생수 3만 병 전달식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가 수용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얼음용 생수 3만 병을 지원했다.

최근 2년 임기의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에 취임한 진성 스님을 비롯해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3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돕는 얼음용 생수 3만 병을 전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얼음용 생수 전달식에는 교정협의회 고문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김용운 장로, 백연기 대표, 명예회장 오성택 목사, 현진 스님, 행담 스님, 회일 스님 등 스님들과 이원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교정협의회 운영위원, 전주교도소 최병록 소장, 사회복귀과 이관영 과장, 공현철 계장, 김정하 계장,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원 등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돕는 자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교정협의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이처럼 수용자들을 위해 얼음용 생수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교정위원들이 모아온 생수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2년 간 교정협의회장 임기 동안 수용자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많은 수용자들 중 치열한 자아반성을 통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정교화활동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3일 수용생활을 돕는 생수 3만 병을 전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소장 최병록 소장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협의회에서 후원해주신 떡과 생수를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후원해주신 생수는 30℃ 이상의 폭염이 발생시 수용자들에게 고루 나눠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활동의 일환으로 3만 병의 얼음생수를 전달해왔다.

조동제 지사장

찾아가는 장학금 "학생들 힘내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가정방문 장학금 전달

문수복지재단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은해 관장 및 직원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4일 '가정방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총 720만원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 25명에게 각 전달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장학생은 지역 내 초등학생 3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6명으로 소외 계층 저소득 가정 내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선발됐다.

장학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개인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장학생을 선발하고 후원하고 있다.

서은해 관장은 "성실하고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예지(가명) 학생은 "이번해 사회복지과에 입학했다. 복지관의 후원과 관심으로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다"며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먼저 베풀고 나누고 싶다.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월 1일 제4대 관장 취임식을 복지관 내 강당에서 개최했다. 새로 취임한 서은해 관장은 25년 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지역 내 복지를 위해 활동해 온 베테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4일 '가정방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저소득 가정 방문 전 서은해 복지관장과 직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불청 부산, 사찰 문화 포교 앞장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강의 시작

사찰문화가 새로운 포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진희)는 7월 8일 부산 온천동 불이빌딩 9층에서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강의 입재는 인사말 및 강의 진행설명 등으로 시작했으며 첫 강의는 박종안 포교사가 담당했다. 강의에는 기존 인원수인 30명 보다 초과한 40명이 참여했으며 불자 외 일반인, 천주교 신자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희 회장은 "선착순 30명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며 "참여 인원수를 더 늘렸는데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대기가 있을 정도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더 받지 못했고 강의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강의는 매월 2, 4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총 7강 5번의 사찰답사로 진행된다.

대불청 부산지구에서 진행하는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은 지난 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돼 시작됐으며,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불청 5개 지구에서 참여한다.

한편, 제1기 사찰문화해설사 수료생들은 현재 부산지역 폐사지를 답사하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불 논단

지금은 명상콘텐츠 시대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세계적으로 명상 어플 유행 중
'캄' 제작사 가치 1조 원 이상
명상 기기 · 버스 등도 '유명세'

'코로나19'로 명상콘텐츠 인기
국내서도 '하루명상' 등 출시돼

뉴미디어로 명상 접근성 높아져
양질 명상콘텐츠 확보 향후 과제

일반적으로 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적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 중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명상 콘텐츠를 정의해 보면 결국 "명상을 소재로 구체적으로 가공하여 매체로 구성한 창의력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현재 명상콘텐츠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이자 애플 앱스토어 올해의 앱에 선정된 바 있는 명상앱 '캄(Calm)'이다. 오래전에 다운로드 수가 7000만 건이 넘어섰고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즉 1조 원 이상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를 이어 티베트 스님 출신 앤디퍼디컴이 만든 명상앱 '헤드 스페이스'가 다운로드 수 40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또한, 마치 SF영화의 우주선에 있으면 어울릴 듯한 돔 모양의 외형에 명상가이드 프로그램과 칼라테라피 그리고 특정 뇌파를 이용한 이완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는 명상 기기 '소마돔'도 인기다. 더불어, 어머니의 자궁을 연상시키는 탱크 안에 사해보다 높은 염도를 지닌 소금 농축물과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플로트 탱크(Float Tank)'와 동굴 형태의 인테리어와 명상 쿠션 그리고 빛을 내며 변화하는 구형체를 활용한 모바일 명상스튜디오 명상 버스 등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명상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개인의 기호 차원을 넘어 심신의 건강증진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명상콘텐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를 극복하기 위한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앱인 '하루명상'과 명상 프로그램이 추가된 모바일 힐링 게임 '마이 오아시스' 등 간편하게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진 명상콘텐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최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된 차명상콘텐츠 영역처럼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 자리 잡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최근 새롭게 구조화되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올디즈 벗 구디즈(Oldies but Goodies)' 영역의 활성화도 기대가 크다.

특히 차명상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찻집들이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칼라테라피 요소를 갖춘 찻잔을 매체로 사용하여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명상 방법을 따라 하기만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더 큰 장점은 상상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마음에 찻잔을 띄우는 활동을 통해서도 심리적 몰입을 통한 행복감 증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치료 기제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초연결의 시대를 맞이하여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명상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오디오클립, 인공지능 스피커, IPTV(인터넷TV) 등에서 거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 맞닥뜨린 이러한 명상콘텐츠 시대에 양질의 명상콘텐츠를 지혜롭게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비대면과 언택트의 시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社說

주목받지 못한 성보 관심 갖자

사찰은 말 그대로 전통문화의 보고이다. 전각들은 한국 전통 건축의 총체이고, 이를 장엄하는 불상과 불화들은 종교화를 넘어 한국미술사의 한 축이다. 탑과 부도는 한국 석조문화재의 중심에 있다.

별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중요한 부속기록물 등이 있다. 사찰 전각의 현판이나 주련들이 그렇다. 이들 문화재들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지만, 일반인 알기 어렵고 관리 소홀로 보존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이 사찰과 궁궐, 관아 등의 현판, 주련, 비문, 묵서 등 부속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전수조사는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 622건에 부속기록물 1485개, 관련기록물 4만 579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오는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화가 추진된다. 또한 건조물과 부속 · 관련기록물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기준에 부속기록물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최근 주목받지 못했던 성보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작업들이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다.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재연구소과 함께 진행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서 5년간 전국 사찰의 불단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불단 역시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돼 불상, 불화 등과 같은 불교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해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찰이라는 종합적 문화재에 허투루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유무형의 성보이다. 이를 주목하고 발굴해 알리는 것이 후학들이 할 일이다.

실천하는 수행 문화 정착을…

조계종 포교원이 7월 6일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을 발표했다. 조계종이 제안한 5대 수행법에는 수행으로서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불교에서는 그동안 전통수행법으로 간화선을 축으로 한 참선과 법회 등에서 경을 읽는 간경, 그리고 함께 부처님의 명호 등을 외는 염불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경과 주력, 절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다양한 수행법이 발달하고 있지만 선종을 주창하는 조계종 입장에서는 간화선 외에는 뚜렷한 종단 공식 불교수행법이 없었다. 이번 5대 수행법에는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지계와 함께 조계종의 참선, 그리고 간경, 염불 수행법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회적 실천방안으로 보살행을 넣음으로서 대승불교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그동안 불교는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문화 정착을 요구받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예전 기도중심, 음력법회 중심,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신행, 수행을 제안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이번 5대 수행법의 골격은 새로운 신행혁신, 수행혁신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불자로서 불교 윤리를 강조하기보단 선한 행위를 통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5대 수행법은 보급이 과제다. 조계종 포교원은 워크북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7월 포교신도단체 결집대회서 확산 의지를 다진다. 그 무엇보다 불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5대 수행법의 생활화 의지를 북돋는 종단적 움직임이 일길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경청, 최고의 대화 기술

대화의 기술은 사회생활서 꼭 갖춰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화의 기술이라고 해서 달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매끄럽게 잘 하면 오히려 진실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대화 할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습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문을 갖고 물었을 때는 모순된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화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야 하며, 지겹다는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불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 대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문을 갖고 물었을 때, 상대를 무시하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수로 한 말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는커녕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화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敬聽)입니다.



그림 · 최주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20%만 말하고, 80%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은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내가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야만 상대방 말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내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경청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몸짓입니다.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 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에 흠뻑 빠지는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이리저리 재어가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종종 오해가 빚어질 때가 있는데, 남의 말을 열심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은 대개 잘 듣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오해 없이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상대의 말을 담아 둘 공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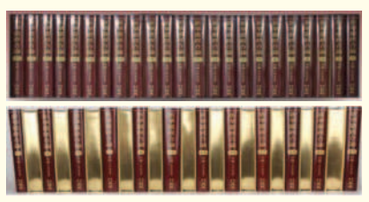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지리산 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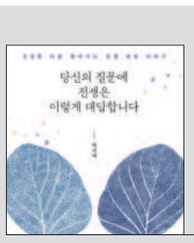
집중인터뷰 박진여 전생 리딩 상담가

“전생 알면 앞으로의 삶 방향 보여”



Q:지금 불행과 괴로움 원인은…

A:태어나기 전 스스로 세운 계획과 약속 때문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진여 지음/김영사 펴냄/1만 4500원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문득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전생에 나는 누구였을까’ 등등의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특히 과거의 생과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삼세 모습이 하나의 연결 고리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이 수평선상의 출발은 과거의 생이다. 단 1분 만에 상대방 전생 정보를 읽는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 씨의 신간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를 보면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박 씨는 지난 20년간 CEO부터 정치가, 학자, 성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2만여 내담자들의 전생정보를 읽어낸 후 현생과의 연관성을 상세하게 풀어내 상담을 진행했다.

그런 그녀가 수많은 리딩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인간은 저마다 풀어야 할 카르마(업)의 숙제를 갖고 태어났다는 점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현재 우리가 경험한 일상의 모든 문제들은 전생의 행위와 연결돼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리딩 사례가 담겨 있다. 원인 모를 편두통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여성,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남성,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사고로 잃은 어머니, 아내의 불륜으로 절망하는 남편, 직장 상사의 무시와 폭언으로 고통받는 직장인까지. 사랑 · 결혼 · 건강 · 가족 · 인간관계 등의 문제 이면에는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안내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왜 사는가’ 라는 인생의 궁극적 물음에 대한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찰로 이끈다. 저자를 만나 전생 리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들었다. 〈편집자 주〉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저자와의 10문 10답

Q 전생 리딩 상담가란게 얼핏 일반인들이 들으면 마치 무당이나 점술가로 오해하기 쉬운 좀 생소한 분야인데, 평범하지 않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시절 환자 이름이 적힌 혈액 샘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느끼게 된다거나, 구급차에 실려 온 환자들의 병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을 하면 거의 맞았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파동 명상 전문가인 법운 최영식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독특한 자질을 알아보신 스승님 밑에서 전생을 리딩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Q 선생님 책을 읽어 보니까 윤회 사상을 전제로 하시던데, 불자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전생 보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불교에서는 윤회, 환생에 대한 개념이 주요 가르침의 한부분이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16년 미국 맨해튼 뉴욕대에 갔을 때 과학과 예술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놀란 것은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서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에게는 윤회와 환생 등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생’ 이라는 개념을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 하더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윤회, 환생 등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의 전생 보는 능력은 과학적 수치를 근거화해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만난 수많은 내담자들과의 상담 사례를 통해 내담자들의 만족스런 반응과 평가가 현생서의 인과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2000년부터 ‘빅진여전생연구소’를 운영하며 20년 동안 몇 명의 내담자를 만나셨나요? 그리고 하루에 세 명 이상은 상담을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약 2만건 정도를 리딩했습니다. 리딩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루에 3~4명 이상 리딩하게 되면 리딩 후에 기력이 떨어져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 주저앉게 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Q 카르마(업보)를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책 속에서 보면 선생님은 선과 악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카르마는 과실이나 실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를 통해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셨지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카르마(업)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점. 그 자체가 도덕적이면서 윤리적 균형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으면 나중에 나도 한 대 맞거나 야단 맞거나 내가 한 행위의 결과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서 이야기하는 카르마(업)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시간(전생)속에서 나의 영적 불균형을 현생에서의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공부의 계기이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장치라 할 수 있죠.

Q 우리가 운명은 타고 난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렇다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인가요? 책 속에서 선생님은 이와 반대로 찰나의 선택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시면서,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선 스스로를 바라보는 명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A 운명과 숙명은 다릅니다. 한자의 운명은 옮길 운자를 씁니다. 즉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숙명은 머무를 숙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머물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운명과 숙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명에는 피할 수 없는 꼭 대가를 치러야 할 카르마가 전제돼 있죠. 반면에 운명은 자신의 선행이나 마음가짐, 노력과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찰나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미래의 방향성을 긍정적이든 부정적 영역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찰나의 선택은 순간적 감정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적절한 카르마가 많이 개입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카르마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명상을 통해 끊임없이 지혜심을 길러야 됩니다.

Q 우리가 결국 선생님께 전생을 알려고 상담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함인데, 이런 자신의 문제는 결국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과의 상담이 내방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A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 리스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갈 인생길을 만들어 가죠. 리딩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지 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리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 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Q 내방자들의 심리 속에는 보통 선생님을 찾아올 때 자신의 전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보통 점술가나 무당들에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상담 내용은 그런 것 보다는 주로 갈등관계에 대한 해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방자들이 실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A 전생 상담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원인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삶과 인연 관계를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러나 전생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래를 알기 위해 오기 보다는 지난 시간(현생서의 과거)에서 풀리지 않던 숙제를 풀기 위해서나 현재의 갈등이나 문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도움 받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술이나 역학 상담을 기대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스스로 알고 더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선생님은 결국 전생이란 매개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선행과 수행을 하고 카르마를 맑게 정화해 다음생을 올바르게 준비하자고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인 불교의 진리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A 고, 집, 멸, 도 즉 불교의 사성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현생에 영향을 미치는 전생의 인과를 알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기도와 수행 및 선행을 하게 되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통과 집착을 멸하면 도를 이루게 된다는 사성제와 같습니다. 여기서 전생을 리딩하는 것은 고와 집을 알려주는 것이고 멸과 도는 스스로의 선행과 수행으로 이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불교 혹은 다른 여러 인류의 빛나는 영적 전통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Q 이번 책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는 2015년 펴낸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와 내용상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2015년에 출간한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는 제 개인의 성장배경과 전생 리딩을 하게 된 계기, 리딩과 더불어 저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전생 상담을 통해 현생에서의 영적 약속과 공부를 배워가는 부분을 전달하는 에세이로 구성했죠.

2편격인 이번에 출간한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는 리딩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례를 전하고,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 의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유수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및 철학자들이 전생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들로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전생 리딩을 통해 알게 된 의미들을 좀 더 상세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지난 20년간 힘들지만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비난도 있었고, 우군이라 생각했던 불자들에게서 ‘사법(邪法)’ 이라며 이단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단함 속에서 저 스스로를 의심하고 관찰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 저 스스로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회나 환생의 개념을 잘 모르는 서양에 그 의미를 알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도 과거 생을 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日 변호사 스님의 법률이야기 화제

박영빈 객원기자

곤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스님과 변호사는 의외로 닮은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두 직업을 함께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7월 5일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는 '변호사 스님'인 혼마 히사오 스님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혼마 스님은 에도시대(17~18세기)부터 이어지는 일련종 사찰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스님은 "차남이기에 집안을 이어야한다는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경전이나 불교서적에 둘러싸여 자랐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자유롭지만 불교적인 요소가 가득한 성장배경은 스님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스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생각했다. 사찰을 이을 예정이 없으니, 자신의 기반만으로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고민 끝에 법조계를 선택했다.

다양한 진로 가운데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스님은 "의외로 사찰은 법률과 밀접한 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가장 쉬운 예로 사찰의 경우 예로부터 토지를 여기저기 소유하고, 신도들에게 특별한 문서작성 없이 빌려준 경우가 많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분쟁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신행상담 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잦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된다면 사찰이나 신도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스님은 회상했다.

일본에는 예로부터 '몸을 피하는 사찰(駆け込み寺)'이라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을 보장 받기 힘든 이들이 일종의 치외법권인 사찰에 문제해결을 위해 몸을 잠시 의탁하는 것을 이른다. 혼마 스님은 "이러한 말이 아직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사찰이 지역의 문제와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며 사찰이 가진 법적인 기능도 설명했다.

혼마 스님, 도쿄대 졸업 후
엘리트 법조인으로 활동해
출가후 사찰 법률상담 활약



자신이 저술한 사찰법무관련 서적을 들고 있는 혼마 히사오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뉴스

혼마 스님은 법조계로 진로를 정한 후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게이오대 로스쿨이라는 엘리트 법조인 코스를 밟았다. 모두가 집중하는 로스쿨 재학 중 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출가계기에 대해서 스님은 "큰 결심은 없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여름방학기간에 일정이 비는 때에 마침 수행도량이 열렸다"고 전했다.

스님은 "당시 제도로 단기간 집중코스와 같은 출가자 양성제도가 있었다. 약 40일간의 혹독하기 그지없는 수행과 교육을 마치고, 본산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면 승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너무나 혹독해서 몇 번이고 도주할 생각도 했지만, 치열한 정진 분위기에 휩쓸려 모두 해낼 수 있었다"며 웃어보였다.

무사히 승적을 얻고 복학한 후 사법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다. 스님은 "로스쿨엔 다양한 출신의 인재들이 모이지만 사찰이나 불교계 출신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자신과 같이 승적을 가진 변호사, 혹은 교계출신의 법조인들과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혼마 스님은 "불교학과 법학은 종교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꽤나 다른 학문의 분야이지만, 서로 보완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인 시선만으론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불교학으론 응답할 수 있다"면서, "불교는 메마른 현대사회를 다시금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활동을 위해 평소엔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있는 스님이지만 "장래에는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종교법인법 교육을 하고 싶다"며 미래의 포부를 밝혔다.

日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도 연기

천태종 종조 원적 1200년 기념
코로나19 사태에 등불도 반납


근본중당으로 '불멸의 법등'을 반납하는 기념법회준비위. 사진출처=히에이산 공식 페이스북

일본 천태종의 종조 사이쵸(最澄)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이 결국 무지한 연기됐다. 7월 3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불멸의 법등'은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산(比叡山) 엔랴쿠지(延暦寺)의 본당인 근본중당(根本中堂)에 켜져 있는 등불의 별명이다. 이 등불은 799년 사이쵸 대사가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불법의 등불이 밝게 이어지리라"라고 서원하며 점등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채 전해오고 있다.

엔랴쿠지는 오는 2021년,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불멸의 법등을 모시고 일본 전국에 소재한 약 2천 6백여개소의 천태종 사찰들을 행각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근본중당에서 등불을 나누는 '분등식(分燈式)'이 봉행됐다. 그러나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약 2달 가량 행각을 연기, 등불을 히에이산의 모처에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2달이 지난 지금, 히에이산과 기념법회 준비위원회는 오랜 기간의 숙고 끝에 결국 행각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분등된 4개의 등불도 보관 중이던 곳에서 원래의 근본중당으로 반납됐다. 반납과 함께 전국행각은 내년 봄으로 잠정 연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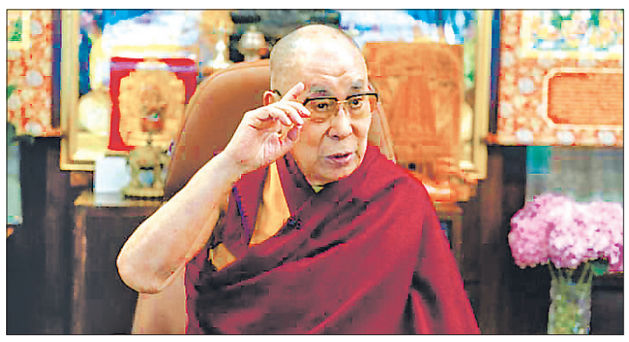
기념법회 준비위원회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 19의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이상, 현 단계에서 행각을 개시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준비된 모든 일정을 재고할 예정이다. 상황의 추이를 봐서 가능하면 내년 봄에 일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1일, 히에이산 근본중당에서 봉행된 반등식(返燈式)은 준비위원회 임원들과 엔랴쿠지 대중스님들로만 간소하게 진행됐다.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인 타다 도유 스님은 법요식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불멸의 법등으로 치유하기 위해 조속히 전국행각이 재개되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85번째 생일 행사 간소화

망명정부, 1년간 탄신 이벤트
"만트라 독송으로 축하" 당부


사진출처=달라이 라마 공식 홈페이지

7월 6일(현지 시간) 85번째 생일을 맞은 달라이 라마가 불자들에게 "110세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 더트리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7월 7일(현지 시간) "팬더믹(대유행) 때문에 생일잔치를 크게 열 수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며 "불자들이 내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만트라(티베트 불교식 주문)를 읊으며 기도해 달라. 그 덕으로써 내가 110세 또는 108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달라이 라마의 85번째 탄신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간소하게 치뤄졌다.

티베트 망명 정부(CTA, Central Tibeta Administration)는 "달라이 라마의 모든 업적과 기여에 감사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하고자 한다. 모두 축하해 달라"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달라이 라마의 탄신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념 행사는 지난 6일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주의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의회에서 50여 고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불자들은 각 지역에 마련된 별도의 의식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의 탄신을 기념했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제76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에 초연됐던 다큐멘터리 '과학자 달라이 라마'도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공개된다. '과학자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가 수많은 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달라이 라마의 생애 첫 육성 앨범 '내면의 세계'(Inner World)도 발매됐다.

해당 앨범은 잔잔한 배경 음악에 맞춰 만트라를 외는 달라이 라마의 육성 11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달라이 라마는 해당 앨범의 제작 배경에 대해 "내 삶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음악은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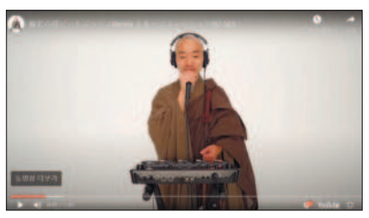
앨범 제작은 달라이 라마의 제자인 주넬 쿠닌이 맡았다. 주넬 쿠닌은 "2015년 달라이 라마가 앨범 제작을 승낙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며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사저에서 녹음 작업을 진행했고, 배경음악 등은 뉴질랜드에서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베트 불교는 윤회 · 환생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이 라마의 사후 환생한 소년을 찾아 후계자로 삼는 전통을 수백 년간 이어왔다. 14대인 현재 달라이 라마는 2살이던 1947년 여러 차례에 걸친 환생 검증시험을 통과한 후 1940년 공식 즉위했다. 1930년 중국의 침공으로 티베트의 주권을 뺏긴 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고 60여 년간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쳤다. 1989년에는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비트박스로 불경 독송을? 日 스님 화제

미VICE, 아카사카 스님 조명
유튜브 통해 '비트박스 포교'


유튜브 채널서 '비트박스 포교'를 하는 일본 승려 요게츠 아카사카(Yogetsu Akasaka). 사진출처=VICE

비트박스(Beatbox)로 불교 명상 음악을 만드는 일본 승려가 화제다.

미국 언론 'VICE'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박스 포교'를 하는 일본 승려 요게츠 아카사카(Yogetsu Akasaka · 37)를 소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아카사카 스님은 지난 5월 이른바 'ASMR' 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조용한 느낌의 'Heart Sutra Live Looping Remix'를 게시한 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루프(Loop)로 소리를 겹겹이 쌓고, 그 위에 '목소리'라는 하나의 악기를 얹어 불경을 독송한다. 해당 영상은 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가 전 비트박스를 즐겨했다"는 아카사카 스님은 "승려인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일본 불교의 전통에 따라 출가했지만 음악과 불교를 접목시키고 싶었다. 비트박스 포교는 음악에 대한 내 열정을 재발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오해를 산산조각 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스님과 법복, 비트박스가 어우러지는 화면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대중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연주자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2020년 제17회
대원상
(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2020년 제17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 분야(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 시상 종류 및 상금
대상 : 1,000만원 ~ 2,000만원
특별상 : 500만원 ~ 1,000만원
장려상 : 300만원 ~ 600만원

◑ 상금 총액 : 1억 3천만원 이내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 사회 활동, 강연(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2) 재가 부문
- 사회 활동, 강연(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재가자 개인 또는 재가자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후보자(후보 단체 포함)가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시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 제17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 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기간 : 2020년 9월 21일(월) ~ 10월 8일(목)

접수 및 문의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지장+육광보살’ 조합… 韓 독창적 도상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⑭ 지장보살 관련 도상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죄와 욕심에 묻혀서 사는 중생들은 살아서는 관세음보살을 찾고, 죽어서는 지장보살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 불교회화를 공부한지 근 20년이 된 지금에서야 그 숨은 뜻을 이해하게 된 나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지장보살은 어떤 보살이시며, 늘 함께 다니는 승려와 무섭게 생긴 왕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장보살(地藏菩薩)은 석가모니가 입멸한 뒤부터 미륵여래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부처가 없는 세상에 머물면서 육도(六道)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대비보살이다.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에는 ‘지장삼부경(地藏三部經)’으로 불리는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지장보살십륜경(地藏菩薩十輪經)〉,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장보살청문법신찬(地藏菩薩請問法身讚)〉, 지난 글에서 살펴본 〈시왕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전들과 전적들이 존재한다.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과 경전이 다양해지면서, 도상 역시 조각과 회화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하여왔다. 지장보살 도상은 초당(初唐) 시기에 출현하였으며, 그 예가 정관(貞觀) 2년 628년에 조성된 섬서성(陝西省) 관중(關中) 삼현(彬縣) 대불사석굴(大佛寺石窟) 천불동(千佛洞) Q130호의 지장보살상과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의 고원(固原) 수미산석굴(須彌山石窟) 105굴의 지장보살이다. 대불사 지장보살상의 경우 안면이 훼손되어 구체적인 용모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수미산의 경우 삭발한 사문형의 지장보살이 왼쪽 다리를 의자에 얹고 오른쪽 다리를 내리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의 지장보살상은 삭발한 사문형 지장의 단독상으로 조성이 되다가 경전이 다양하게 편찬되면서 관음보살, 지옥관련 인물 등 다른 존상과 함께 표현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화의 경우 경전의 내용과 도상을 조각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에 ‘지장보살도’, ‘지장육광보살도’, ‘지장시왕도’, ‘지옥변상도’ 등으로 세분화되어 근대까지 제작되었다.

위에 언급한 지장관련 회화 중에서 ‘지장육광보살도’는 현재까지도 조선불화만의 도상적 특징이라 알려져 왔다. ‘지장육광보살도’의 일반적인 화면구성은 일본 요다데라(與田寺) 소장의 15세기 제작 〈지장육광보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면의 중앙에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그 좌우로 지장보살의 협시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그려지며, 그 위로 좌우 각 삼존씩 모두 육존의 육광보살이 묘사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도상들 이외에 시왕 또는 여러 보살들이 추가되는 사례도 있다.

고려 시대에 제작된 지장육광보살도는 전하는 것이 없어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다만 지장육광보살도는 현존하는 유물로 볼 때 조선 전기에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꾸준히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의 좌우에 시립해 있는 육광보살은 〈시왕경〉에 의하면, 지장보살을 도와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추측해보면 지장육광보살도가 조선시대에 성행한 이유는 지장과 시왕관련 신앙의 대중화와 더불어 내세의 구원을 기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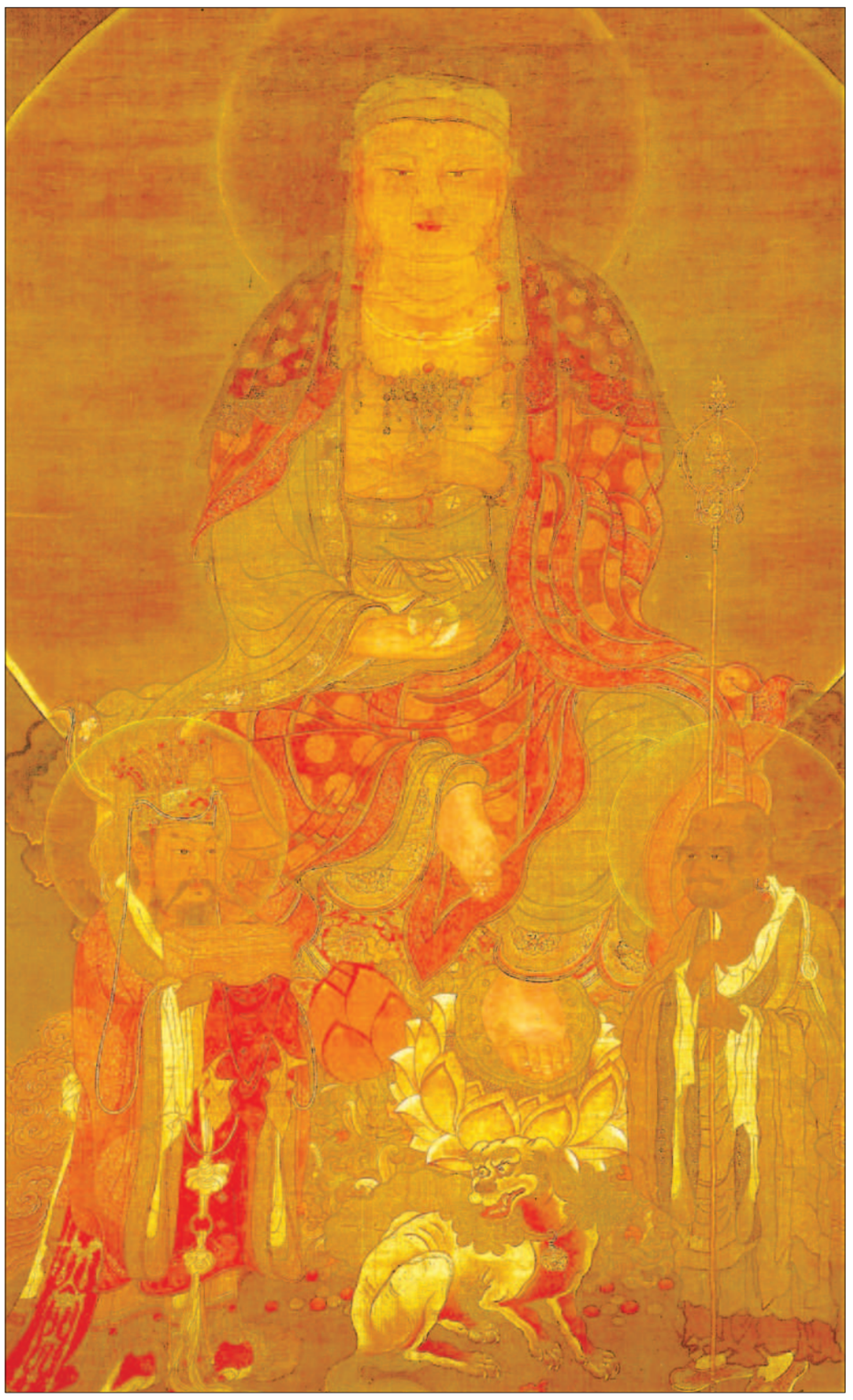
육광보살이 묘사된 그림은 화면을 구성하는 도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요다데라 소장의 15세기 제작 〈지장육광보살도〉와 같은 유형이다. 이 그림의 화면구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좌우에 육광보살, 지장보살의 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배치되어 있다. 조선 초기부터 성립된 이러한 화면구성은 19세기 제작의 화암사와 화엄사의 〈지장육광보살도〉의 사례처럼 범천과 제석천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도상이 추가되거나 탈락되는 조선말기 불화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지장삼부경’ 바탕해 도상 조성**
> **조선 代 ‘지장육광보살도’ 유행**
> **육광보살, 중생 고통 덜고 교화**
> **당시 지장 · 시왕 신앙 확인 단초**

두 번째는, 앞의 첫 번째 유형의 그림에 사천왕이 추가된 경우이다. 16세기 제작의 일본 호슈인(寶壽院) 소장 〈지장육광보살도〉와 네즈미술관 소장 〈지장육광보살도〉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천왕상이 지장육광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구씩 배치되어 있는 구도이다.

세 번째는, 첫 번째의 화면구성에 지옥의 시왕이 묘사된 나나츠데라(七寺)의 그림과 같은 경우로서, 지장육광보살에 도명존자, 무독귀왕, 시왕이 표현된 가장 성행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지장시왕도’라 부르는 그림이다.



일본 엔가쿠지 소장 고려불화 ‘지장보살도’.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표현된 현존 가장 빠른 사례이다.



해인사 사간판 〈예수십왕생칠경변상도판본〉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부분. 고려 1236년에 조성됐다.

그런데 조선 지장육광보살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한 폭에 지장보살과 육광보살이 결합된 지장육광보살도는 중국 및 일본에서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장육광보살도’는 한국불화만의 독자적인 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장보살의 협시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묘사되는 도상 역시 한국불화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엔가쿠지(圓覺寺)소장 14세기 고려불화 〈지장보살도〉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표현된 현존 가장 이른 사례이다. 물론 돈황 출토 오대북송(五代北宋)시기 〈아미타여래와 지장시왕도〉의 예처럼 도명존자가 묘사된 중국 불화는 적지 않지만, 무독귀왕도 함께 그려진 그림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육신충(陸信忠)이 그린 교토 로잔지(廬山寺) 소장의 남송 13세기 〈지장보살도〉와 오오사카 고센지(弘川寺) 소장 〈지장시왕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지옥의 사자로 보이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만약 이 인물을 무독귀왕으로 본다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동시에 등장하는 도상의 원류를 중국에 둘 수 있겠지만, 이 도상은 감제사자의 모습에 훨씬 가깝다.

명부세계와 관련된 경전 및 전적류에서 무독귀왕은 〈지장보살본원경〉와 〈유가집요염구시식의(瑜伽集要焰口施食儀)〉에 그리고 도명존자는 〈환혼기(還魂記)〉와 〈마니경하부찬(摩尼經下部讚)〉을 포함한 몇몇 문헌에 각기 따로 등장하지만,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등장하는 경전은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시왕경〉의 내용 중에 언급되지 않은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경전의 내용을 판각한 고려 1236년 해인사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판화〉에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해인사본을 살펴보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육광보살의 뒤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제1 진광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시립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의 어디에도 묘사되지 않은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1574년 황해도 흥률사간(興栗寺刊)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판화〉에서도 그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표현된 사례는 고려시대의 〈지장보살도〉와 고려와 조선의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판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도상 구성은 근대까지도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지장보살과 함께 표현되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중국과는 다른 우리 조선만의 독자적인 도상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한국불화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묘사된 도상이 일반적인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곧 조선 불화의 독창성이라 생각한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개강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유연성, 정책과 정치의 또 다른 생명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⑭ 혁신의 바탕



그림 · 박구원

벨리사리우스는 비잔틴 제국의 명장으로 백전백승의 전설적인 장군이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벨리사리우스를 견제하지 않았다면, 동로마제국은 서로마제국을 탈환했을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부하인 벨리사리우스를 두려워하여 더 이상 서로마제국으로 진격하지 못하게 막았으니 참으로 못난 황제임이 틀림없다. 벨리사리우스 군대는 이민족이 절반인 칵테일(혼합) 군대였으며, 기병이 보병 역할까지 하고 보병이 기병역할까지 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특징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몽고는 작은 나라였다. 동유럽까지 석권했던 몽고는 건강한 젊은 성인 남자의 거의 대부분이 군대에 참여했다고 한다. 몽고의 징기스칸 군대는 이슬람 국가를 차례로 궤멸하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드디어 동유럽에 도달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공포에 휩싸였다. 유럽의 군대는 아예 몽고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몽고군이 오스트리아 근처까지 진격했는데 오스트리아 군대가 몽고군 척후병을 생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투구를 벗겨보니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몽고군은 다국적군이나 마찬가지였다. 인종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유능하고 충성을 맹세하면 군대는 물론이고 관리로 활용했다. 백인의 눈은 파란색 등 다양했기에 백인은 색목인이라고 불렸다. 당시 몽고의 수도에는 수많은 색목인이 거주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색목인이 몽고인 다음으로 권력을 누렸다는 기록이 있다.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기 전에 사전 염탐을 위해서는 몽고인보다는 백인이 더 적합했으리라. 놀란 오스트리아는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많은 몽고군이 홀연히 사라진다. 알고 보니 징기스칸이 사망하여 모든 군대가 몽고의 수도로 돌아갔던 것이다. 만약 징기스칸이 몇 년 만 더 살았어도 유럽은 완전히 몽고인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러시아는 지역에 따라 100년에서 300년 동안 몽고에 지배당한다.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유연성과 나란히 갈 수밖에 없다. 다양하면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몽고는 종교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허용했다. 러시아를 지배할 때 러시아 정교에게 자유를 주었기에 러시아 정교는 몽고 지배하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사물과 현상이 수많은 요인과 수많은 조건에 의해 임시적으로 존재할 뿐 공(空)하다고 설한다. 수많은 요인과 수많은 조건이 끊임없이 변화할 때 다양하지 않고 유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제행무상'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불교교리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농사만 짓지 말고 상업, 목축은 물론이고 집을 지어 세를 놓아 임대료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권장하셨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하셨으니 이는 불교교리의 성격상 당연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요인과 수많은 조건이 연기 화합하는 세상에서 획일성을 고집하면 변화에 뒤떨어지고 도태된다. 획일성을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불교의 정신은 부처님의 승가운영에도 드러난다. 부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부자에게는 부자에 맞는 기준을,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자에게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출가자에게는 돈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재가자에겐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셨다. 비구와 달리 비구니는 귀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된다고 허용하셨으니 비구와 비구니에게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신 것이다.

몽고는 여러 민족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몽고의 무기와 전쟁 기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 될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개량하는 몽고의 응용력이 바로 세계 제패의 비법이었다. 연기의 세계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되는 연기의 세계는 경계선도 없고 실체도 없는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뛰어넘는 파악 불가능한 세계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 다른 사물과 현상에 의해 임시로 존재하는 연기의 세계는 열린 사고, 개방된 사고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몽고는 불교국가로 발전했지만 가톨릭, 러시아 정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자이나교의 유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불교로 개종하겠다고 하자 부처님이 개종하지 말고 자이나교에 남으라고 말씀하신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세는 열린 자세, 공존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포교를 강조하셨고 포교의 극대화를 위해 여럿이 가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가라고 하실 정도로 포교를 중시하셨다. 그러나 오직 불교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몽고군대의 강함 '다양성'
이웃문화 대한 열린 자세
우리 문화의 발전 이끌어

몽고는 세계화를 실현한 국가였다. 몽고의 혁신적인 교통수단은 국경과 민족을 뛰어 넘기도 했지만 몽고의 포용적인 정책은 이민족을 대거 몽고에 편입시켰다. 수많은 민족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은 물론이고 개방성까지 필요하다. 오늘날은 국경을 뛰어넘고 우주를 개척하는 세계화 우주화의 시대이다.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인 닫힌 사고로는 번성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에 전세계가 떨고 있는 시대이다.

모든 것이 변하는 '제행무상'의 세계에서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불교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정치와 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는 변화의 이유가 있어야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변화의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수시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변화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제대로 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학생이라면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여 다시 등교할 때 '나는 방학 동안 무엇이 변했는가?' 라고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회사의 CEO는 수시로 '우리는 잘 변화하고 있는가?' 를 되물어야 한다. 정치인은 '우리나라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해야 한다. 공무원은 '우리의 정책은 지금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고객에게 잘못하면 퇴출당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퇴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1등 기업이 순식간에 2등, 3등으로 추락하고 시장에서 도태된다. 1등 기업도 항상 가시방석에 앉은거나 다름없으니 안주하지 말고 개혁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의해 정치인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인 랭커스터 전 버클리대 교수는 불교를 대표하는 말로 "모든 것은 변한다"를 꼽았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시장과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다. 따라서 정책과 정치도 부단히 변화해야 한다. 기존 제도와 관습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며,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계율을 수시로 수정하였다. 새로운 요인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출가자와 재가자가 기존 계율의 적용에 있어 모순이나 문제에 직면하면 부처님은 그에 맞게 기존 계율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율을 제정하셨다. 새로운 요인과 조건의 발생으로 기존의 계율이 부적절하면 부처님은 혁신으로 변화에 대응하셨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계율이 그대로 있다면 문제다. 이처럼 부처님은 끊임없는 변화의 모범을 보이셨다. 불교는 2,500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시대에 맞게 적응해 왔다. 한국에서는 전통신앙과 결합하고 중국에서는 도교적 요소와 결합하는 등 지역마다 토속종교와 결합하여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해왔다.

불교는 출범부터 혁신적인 종교였다. 제도권 종교였던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흥 종교사상가를 당시에는 사문이라고 불렀는데 사문고타마는 가장 성공한 사문이었다. 불교는 인도의 4계급을 부정하고 행위와 능력을 중시한다. 인도는 그때 농업 사회에 신흥 상공업이 등장하고 도시가 형성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주로 4계급 중 세 번째 계급인 평민 계급 수드라에 속했다. 경전에는 이들을 장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급을 부인하고 행위와 능력을 중시하는 불교에 열광했다. 불교는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 2,500년전의 일이니 얼마나 개혁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인가? 오늘날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과 비교해보아도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참신하고도 파격적이다.

불교의 지혜는 세간을 비추는 지혜이어야 한다. 불교는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 혁신성의 종교이다.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 혁신성은 세간을 헤쳐 나가며 살아야 하는 중생에게 불교가 주는 선물이다.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선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 혁신성이 필요하다.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도 성공의 핵심 단어는 적응이다. 우리나라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우리를 덮치는 파도를 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한반도는 남과 북이 충돌하고 있는 대치의 땅이며 대한민국은 동과 서가 대립하는 갈등국가이다. 불교가 제시하는 정책과 정치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적응이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적응은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 혁신성을 가진 정책과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불교는 말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고 유연하며 개방적이고 혁신적일까?

〈고려대 명예교수〉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정각 이룬 비구니·우바이 禪者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⑭ 宋代 비구니와 여성 수행자

인류사에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가 있듯이 불교사에서도 이런 면을 배제할 수 없다. 고대 인도에서는 여인의 존재감이 매우 낮았다. 여자들은 아이 낳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 관념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본질적인 열등성을 강조하여 인도인들은 여인을 남성과 동물 중간 정도의 존재감으로 보았다. 그런데 부처님법에서는 여인이 하열한 존재가 아니었다.

비구 '10대 제일'이 있듯이 〈증일아함〉 '비구니품'에는 붓다의 뛰어난 비구니 제자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인오장설(女人五障說)·변성성불(變性成佛)·비구니 팔경계(八敬戒) 등 왜 여인성불에 부정적인가? 이는 후대에 경전과 율장이 편집될 때 그 시대적인 요청이 가미된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튼 중국에서 선이 발전하면서 비구니와 여인 선자들이 꾸준히 배출되었다. 송나라 때로 접어 들어 비구니 활동이 두드러졌다.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법맥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 문하에 정각을 이룬 비구니 및 재가 여성 제자가 많았다.

먼저 대혜에게 법을 받은 비구니와 진국태부인을 보자. 진국태 부인에 관해서는 〈서장(書狀)〉 '답진국태부인(答秦國太夫人)'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우바이 禪者 진국태부인

송나라 수도 개봉에 허씨 성을 가진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법명이 '법진(法眞)'으로, 장태사(張太師)와 결혼하였다. 그녀 나이 30세에 남편이 세상을 하직했고, 홀로 자식 둘을 키웠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불교를 믿으며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웠다. 모친의 정성에 큰 아들 소원(昭遠)은 자사(刺使)에 올랐고, 작은 아들 덕원(德遠)은 승상 지위에 올랐다.

그녀는 나이 70세에 이르러 여생을 조용히 보내며, 마음속으로 대혜 선사를 친견해 가르침 받기를 서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수만리 떨어진 항주의 경산사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혜 선사의 제자인 도겸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노부인은 도겸에게 정중히 법문을 청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대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몸이 늙어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대신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대혜 선사께서는 우리 같은 늙은이를 만나면 어떤 법문을 해주십니까?"

"스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 '마음이 있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문을 들려주시고, 도 닦아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하라고 합니다."



당대를 거쳐 송대에 이르기까지 비구니 선종사찰이었던 절강성 온주 정거사 산문 입구.

"어떻게 무자 화두를 참구하라고 지도하십니까?"

"한 승려가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 조주 선사께서 '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조주 선사께서 답하신 '무'의 참뜻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라고 했는가를 간절히 의심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을 놓지 말고 앞으로 밀어 붙일 뿐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겸 스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대혜 선사를 친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노부인은 용맹정진에 들었다. 오로지 한 생각, "왜 '무'라고 했는가"를 묻고 되물으면서 7일 밤낮을 정진하다가 한순간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오색이 찬란한 봉황새 한 마리가 집 정원 뜰에 내려앉았다.

'아, 저 새 위에 올라앉으면 편안하겠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그녀는 새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봉황이 허공을 향해 날아올랐고, 잠깐 사이에 구만 리 장천에 이르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집들은 조그마한 점이 되어 오글거리고, 큰 강은 줄 하나 그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조그만 점과 같은 저 집들 속에서 서로 살겠다고 욕심을 내고 성을 내며 치고 박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녀는 인생살이의 참 면모를 깨달았다. 그리고 봉황새가 날아가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세상의 이곳저곳을 모두 구경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대혜 문하 비구니·우바이 '눈길'
진국태부인, 대혜에 '정각' 인가
무제·초종 등 여섯 비구니 '탁월'
비구니→비구니 법맥 전수하기도

봉황새가 사뿐히 정원에 내려앉는 순간 그녀는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무자 화두를 깨쳤다. 그녀는 기쁨에 못 이겨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시를 지어 깨달음의 게송을 읊었다.

"꿈 속에서 봉황을 타고 푸른 하늘에 올라보니, 비로소 인생살이가 하룻밤 여인숙에서 보낸 것임을 알았네. 돌아와 보니, 한바탕 행복한 꿈길이네. 산새의 한 울음소리, 봄비 온 뒤 해 맑더라.(夢跨飛鸞上碧處 始知身世一搪廬 歸來錯認邯鄲道 山鳥一聲春雨餘) 날마다 경전을 읽으니, 옛적의 지인을 만나는 것과 같구나. 수여 곳에 걸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한 번 보니, 한 번 다시 새롭구나.(逐日看經文 如逢舊識人 莫言頻有碍 一擧一回新)"

그 뒤 도겸 스님이 다시 노부인을 방문했는데, 부인은 이 두 수의 시를 주면서 대혜 선사에게 증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시를 본 대혜는 노부인의 정각을 인가한다는 답장을 보내었다.

일타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행에는 '간절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 '법(Dharma)'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듯이 화두에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다. 자신이 어떤 화두를 잡았으면, 그 한 화두를 간절하게 꾸준히 밀어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혜의 여섯 비구니 제자들

이어서 대혜의 여섯 비구니 제자를 만나보자. 제자에는 △무제(無際) △초종(超宗) △자명(慈明) △묘도(妙道) △무착(無著) △진여(眞如) 등이다.

〈속비구니전〉에 의하면, 대혜의 대표 제자로 혜조무제, 무착묘총이 있다. 무제와 무착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 관계다. 무제는 무착에게서 삭발했는데, 아무리 정진해도 깨달음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중, 스승인 무착을 따라 경산의 대혜 문하에 입실해 깨달음을 얻었다. 무착은 제자 무제에게 '대중을 지도하라'고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제 비구니를 따랐다는 기록이 전한다.

한편 〈조동종니승사〉에는 무제와 초종 비구니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 〈운와기담〉에 의하면, '두 비구니는 모두 대혜 종고의 제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의 법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 문헌에는 이들이 모두 비구니인데도 '도인(道人)'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무제 도인이 탑 주변을 청소하면서 게송을 읊자, 초종 도인이 다음 화답을 하였다.

"탑은 본래 먼지가 없는데, 무엇을 쓸어 없애려는가? 쓸어 없애는 즉 곧 바로 먼지가 생김이니, 이렇게 해서는 도달하지 못한다네.(塔本無塵 何用去掃 掃即塵生 所以不到)"

다음은 비구니 자명을 보자. 〈대혜보각선사보설〉에 '니자명대사(尼慈明大師)'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서도 비구니에게 '대사(大師)'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조동종니승사〉에 '자명이 대혜의 제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혜에게 비구니 제자로 묘도와 진여 두 사람이 전한다. 묘도 비구니는 정거사에 오래 머물러 살았다. 묘도는 정거사에서 개당설법을 하였고, 모 비구니와의 법거량이 〈속비구니전〉에 전한다.

〈속비구니전〉에 의하면, 진여는 출가 전에 황궁에 살았다. 황궁에서 교귀비의 신하였는데, 귀비가 진여의 출가를 허락해주었다. 진여는 여러 지역을 행각하며, 선지식을 찾다가 민(閩, 현 복건성)에서 대혜를 만나 법을 받았다. 〈속전등록〉 제 29에는 진여와 제천(濟川) 거사의 문답이 전할 정도로 깨달음이 높은 경지에 이른 듯하다.

비구니 법등(法燈)

송나라 시대 선종에 한 가지 특기한 점이 있다. 송나라 초기까지 이런 기록이 전하지 않는데,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법맥을 전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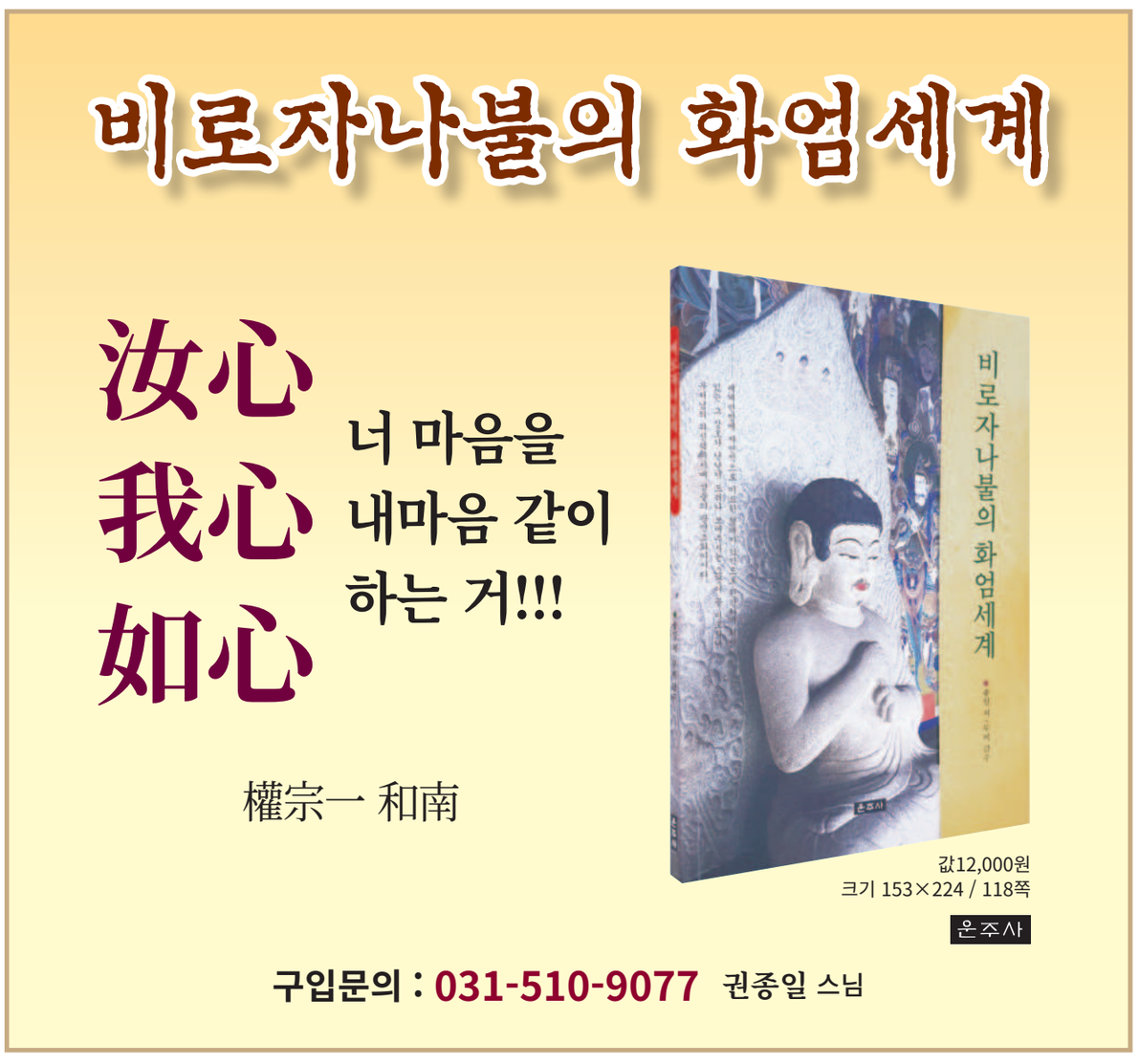
〈속전등록〉과 〈선등세보〉에 "정거사(淨居寺)에 사는 비구니 혜온(慧溫)이 온주(溫州) 정거사 비구니 무상 법등에게 법을 전했다"는 구절이 전한다. 이는 임제종 법계에서 유일한 기록으로 평가된다〈조동종니승사〉. 즉, 비구니 혜온이 비구니 무상 법등에게 법맥이 전수된 것이다.

〈속비구니전〉 '정거사 법등전'에 의하면 혜온 비구니를 정거사의 대선지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혜온은 온주의 정거사에 출가해 용문 청원(1067~1120, 오조 법연의 제자) 문하에 입실해 깨달음을 얻었다. 〈운와기담〉下에는 궁중의 승좌문답(陞座問答)에서 혜온이 보여준 법거량이 전한다. 법등이 혜온 선사를 모시고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으며, 법등은 혜온의 허락을 받아 법석에서 설법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런데 여기 혜온이 상주한 온주 정거사는 절강성(浙江省)에 위치하는데, 이 절은 당나라 때에도 비구니 사찰이었다. '정거사 비구니 현기(玄機)'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 현기 비구니가 설봉 의존(822~908)과 문답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오등회원〉에 전한다. 이 현기는 당나라 때, 6조 혜능의 법을 받았으니 곧 현기는 청원 행사·남악 회양 등과 사형사제인 셈이다. 이와 같이 현기 비구니가 머문 정거사가 당나라~송나라 때까지 비구니가 상주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를 거쳐 송대에 이르기까지 비구니 전문 도량인 선종사찰에서 비구니만의 선풍이 이어지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진각국사 혜심 스님, 차를 읊다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⑭ 고려시대 차 문화



강진 백련사 전경. 백련사에서 수행했던 고려후기 승려 진정국사가 지은 〈호산국〉을 통해 당시 스님들이 서로 차를 구하고 선물했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눌(知訥 · 1158~1210)의 제자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慧諶 1178~1234)은 기존의 선사상을 답습하지 않고 종합 발전시킨 선사상을 제창하였고 정토사상을 적극 수행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간화선을 강조했던 그는 수선사의 제2대 사주로 교세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향리층이나 독서층 자제들이 대거 불교계에 투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고려 후기에도 차문화를 주도한 건 사원과 승려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또한 차를 마시며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 편의 다시(茶詩)를 남길 수 있었는데, 이는 13세기 차문화뿐 아니라 사원 승려들의 음다(飮茶) 풍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더구나 그가 고려 후기 대표적인 다승(茶僧)의 면모를 갖춘 수행자였다는 점에서도 그의 차에 대한 노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가 불교계에 투신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인연은 무엇일까. 그와 불교의 인연은 남다른 면모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그가 출가를 원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 1201년 사미시에 합격, 태학으로 들어갔던 전력도 특별하다. 그다음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선사로 지눌을 찾아가 삭발염의(削髮染衣)한 인연사도 그렇다.

1210년 지눌이 열반한 후 그가 수선사로 돌아갔는데, 사방의 학자와 도인, 속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법당이 좁았다는 것에서도 그가 범상치 않은 수행력을 지닌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소식을 들은 강종(康宗)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수선사를 증축하게 하고 자주 중사(中使)를 보내 공사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만수가사(滿繡袈裟) 한 벌과 마납(磨衲) 한 벌, 그리고 차(茶) · 향(香) · 보병(寶甁) 등을 내렸다고 한다. 왕이 그에게 법을 구하기에 〈심요(心要)〉를 지어 올렸다는 사실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조계산제2세고단속사주지수선사주증시진각국사(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규보의 진각국사 비명(碑銘)에는 13세기 최고의 권신이었던 최우(崔瑀 · ?~1249)가 진각국사의 수행 풍모를 듣고 성의를 보이려 하였고 그의 두 아들을 보내 진각국사를 모시게 하고, 국사의 생활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당시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물품인 차와 향 등을 때마다 보냈다고 하니 당시 왕과 최우가 보내준 차는 당시 유행했던 백차(白茶)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그는 시문에도 능했던 수행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태학에 있을 때 지은 시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고려 후기 문인 진화(陳澕)의 〈매호유고-제목을 잃다(失題)〉의 협주(夾註)에 "뽕 따는 아낙네 든 광주리 봄빛을 가득 담고(臂筐桑女盛春色) / 고기 잡는 노인 쓴 삿갓 빗소리 담고 가네.(頂笠蓑翁戴雨聲)"라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문집 〈무의자전집〉에 수록된 다시(茶詩)는 그의 다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니 그의 시 몇 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차의 덕성은 좋은 차와 이에 알맞은 물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차를 즐기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그 깊이를 더한다. 그러므로 좋은 물을 고르는 안목은 차를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다. 그러므로 다사(茶事)에 밝았던 진각국사는 찻물에 대한 안목도 높았다. 이는 〈찻물 샘(茶泉)〉에 "오래된 이끼 속으로 소나무 뿌리 뻗었고(松根去古蘚)/돌구멍으로 싱그러운 물이 솟아오르네.(石眼迸靈泉)"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고송(古松)의 뿌리가 뻗어 있고 오래된 이끼가 자라는 곳이라면 맑고 청정한 자연조건을 두루 갖춘 곳임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런 조건을 갖춘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면 차의 색향기미를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물이다. 이런 물을 찾아 차를 즐긴 진솔한 연유는 무엇일까. 답은 진각국사의 〈차와 정해문(呈解問)을 보내온 것에 답하여(惠茶兼呈解見答之)〉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밤새도록 참선으로 피곤해진 밤에
(久坐成勞永夜中)
차 달이며 무궁한 은혜를 느끼네
(煮茶偏感惠無窮)
한 잔의 차에 혼미함이 다 걷히니
(一盃卷却昏雲盡)
온몸에 맑은 (차의) 기운 퍼지자 모든 시름이 사라지네(徹骨淸寒萬慮空)

그렇다면 그에게 차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순천 송광사 진각국사 진영.

진각국사, 고려 후기 대표적인 다승
장좌불와시 혼침 극복 위해 차 애용
승려 · 문인, 차 선물하는 풍습 있어

정해문(呈解問)이란 깨달음의 이치에 관한 담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게 차를 보낸 인물은 어느 사찰의 승려로 진각국사와 깊이 교유했던 수행자로 추정된다.

그가 차를 즐긴 연유는 바로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인한 피로와 잠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차가 불교와 융합된 이유였다. 그러니 차를 보낸 사람의 은혜를 "차 달이며 무궁한 은혜를 느끼네(煮茶偏感惠無窮)"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리라.

한편 그는 차를 마신 후, 온몸으로 퍼지는 맑고 시원한 차의 기운은 바로 세상의 온갖 시름과 혼미함을 걷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차의 실효성을 말한 것으로 차를 마시는 이로움과 즐거움은 이런 것이다. 그가 오랜 세월 차를 즐기며 수행했던 흔적은 오봉산 전물암(轉物庵)에서 수행할 때 지은 〈우거전물암(寓居轉物菴)〉에 "이 빠진 다완 다리 부러진 차 솥으로(缺脣椀折脚鐺口)/ 차를 다리며 하루를 보내네(煮粥煎茶聊遣日)"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가 빠진 찻잔은 가루차를 선호했던 고려 후기에 주로 사용했던 찻그릇인데, 이를 오래도록 사용하여 그의 손때가 묻었을 것이며 이도 빠진 것이리라. 이 또한 그의 검박하고 진솔한 수행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얼마나 오래도록 사용했으면 이가 빠지고 다리가 부러졌겠는가. 다완과 차솥은 차를 다릴 때 사용되는 최소한의 기물(器物)로, 이가 빠진 다완과 다리가 부러진 차솥은 그의 걸림 없는 차생활의 일면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가 차를 마시며 수행하던 오봉산은 구례에 위치한 산으로, 전물암은 진각국사가 지눌의 제자가 되기 전인 1203년~1209년 즈음에 머물던 사찰로 짐작된다.

그가 활약하던 고려 후기에는 차를 구하기 위한 걸명(乞茗)도 유행한 듯한데, 이는 〈대흔 스님이 차를 얻으러 와서 시를 청하기에(大昏上人因丐茶求詩)〉에서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너무 깜깜하면 혼침에 들까 두렵나니
(大昏昏處恐成眠)
향기로운 차를 자주자주 끓여야하리
(須要香茶數數煎)
그날의 향엄은 본래 꿈속에 있으니
(當日香嚴原睡夢)
신통을 전하는 일, 네가 도와 전하라
(神通分付汝相傳)

윗글은 진각국사가 자신을 찾아온 대흔 스님에게 써준 시로, 대혼(大昏)이라는 승려의 법명을 시구의 첫 글자로 놓아 유쾌한 희언(戱言)으로 삼았다. 대혼은 매우 깜깜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 "너무 깜깜하면 혼침에 들까 두렵다"라고 한 것이다. 혼침(昏沈)은 졸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차를 자주자주 끓여 마심으로써 졸음을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전한 것이다. 당시 차를 구하고 선물하는 풍습은 승려 사이에서나 문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진정국사 천책(眞靜國師天頙 · 1206~?)의 〈호산록(湖山錄)〉에 실려 있는 〈선사께서 차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謝禪師惠茶)〉라는 시에서도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귀한 차는 몽정산의 봉우리에서 딴 것으로
(貴茗承蒙嶺)
이름난 물, 혜산천을 길었으니(名泉汲惠山)
졸음을 깨끗이 물리칠 수 있고(掃魔能却睡)
손님과는 한가함 누릴 수 있으리(對客更圖閑)
털구멍으론 이슬 같은 땀, 송골송골 맺히고
(甘露津毛孔)
겨드랑이엔 맑은 바람 살랑이네(淸風鼓腋間)
어찌 신령한 약을 마신(何須飮靈藥)
연후에야 동안을 유지할까(然後駐童顔)

진정국사는 백련사에서 수행했던 고려 후기 승려로, 원묘국사의 제자이다. 백련사의 4대 조사(祖師)로 추앙받았다. 시문에 뛰어났던 그는 차를 즐긴 수행자로, 말년에 용혈사(龍穴寺)에서 여러 제자를 배출하였는데, 그 또한 진각국사처럼 문과에 급제한 후 출가한 인물이다.

윗글에서 그가 말한 몽정차(蒙頂茶)는 몽정산 정상에서 생산하는 명차이다. 명차가 나는 몽정산은 사천성 명산현과 아안현 사이에 있고 당나라 때부터 황실에 차를 공납했던 차 산지이다. 특히 몽정차는 약성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초의선사(1786~1866)의 〈동다송〉에도 "육안차는 맛이 좋고 몽정차는 약성이 좋다"고 했다. 물론 진정국사가 활약했던 시기에도 몽정차가 고려에 소개되어 왕실 귀족과 승려들이 즐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산천은 육우가 천하의 제2천으로 명명한 이래 가장 귀한 찻물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진정국사는 혜산천처럼 가장 좋은 물을 길어와 차를 다렸음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최고급 차와 차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을 얻었다면 그의 차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차를 마심으로써 졸음을 물리칠 수 있고 귀한 손님과 탈속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란 최상승(最上乘)의 아회(雅會)다. 더구나 차를 마시자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인다든가 땀이 송골송골 맺힌 경지를 무엇과 비견하랴. 차를 마신 후 맑고 경쾌해진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어디서나 '경계' 활용할 수 있어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㉗ 이언진여(離言眞如)의 경계

누가 물었다.

"어떤 것이 네 가지 상(相)이 없는 경계입니까?"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땅이 와서 막아버리고,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애착하는 것을 물이 와서 잠기게 하고,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와서 태워버리고,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와서 날려버리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이러한 이치를 알아버리면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어디서나 경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에서 솟아 서쪽에 사라지며 남쪽에서 솟아 북쪽에 사라지며 가운데서 솟아 변두리에 사라지며 변두리에 솟아 가운데서 사라지며 물 위를 다니기를 땅 위처럼 하며, 땅 위를 다니기를 물 위처럼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가 꿈과 같고 허깨비 같아 실체가 없어 공(空)함을 통달했기 때문이니라."

상(相)이 없는 경계를 물었다. 이는 생(生)·주(住)·이(異)·멸(滅)의 사상(四相)이 떠나간 생멸이 없는 경계, 다시 말해 공(空)한 경지를 물은 것이다. 외부 경계로부터 전혀 구속을 받지 않고 또한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에 구속받지 않는 생사가 없는 경지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려면 사대가 공(空)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相)을 벗어나는 것은 곧 무상(無常)을 뛰어넘는 것이다. 상(常)·낙(樂)·아(我)·정(淨)의 열반 사덕(四德)이 갖추어진 부처님의 세계가 상(相)이 없는 세계다.

〈금강경〉에서는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을 가지고 말하면서 "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상이 없으면 부처다"고 말했다. 상(相)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두고 하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변하는 어떤 상태, 상황을 두고 네 가지로 구분해 '사상(四相)'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의식에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고집으로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상이다. 현상계(現象界)의 모든 것이 상인데, 배후의 본체계(本體界)를 말하려고 부득이 네 가지 '상이 없는 것'을 물었다. 이는 이언진여(離言眞如)의 경계를 물은 것이다. 사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은 사대가 공(空)함을 깨달아서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방거사(龐蘊 · ?~808)가 남긴 임종게 법문이 전해지고 있다.

"다만 모든 있는 것을 공(空)하게 볼지언정 간절히 없는 것을 실(實)이라 여기지 말라. 세상 잘 살아라.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 같은 것이니라.(但願空諸所有 切勿實諸所無 好住世間 猶如影響)"

여기서 있는 것은 상(相)이고 없는 것은 공(空)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 · 1089~1163) 선사도 〈서장〉에서 방거사의 이 게송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선수행을 가르쳤다. 생사해탈(生死解脫)을 목표로 삼는 선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 사대육신을 벗어나는 죽음에 임해 좌탈입망(坐脫立亡)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임종을 앉은 채로 하는 것을 좌탈(坐脫)이라 하고 선 채로 숨을 거두는 것을 입망(立亡)이라 했다. 죽을 때의 자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문할는지 모르지만 임종에 임해서도 고도의 정신력으로 수행의 내공(內工)을 보여준 일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삼조(三祖) 승찬(僧璨) 대사가 선채로 입적했다 하고, 육조(六祖) 혜능(惠能)은 좌탈을 하였으며, 오대 등은봉(五臺鄧隱峰)은 물구나무를 선채 입적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외에도 좌탈한 선사들의 이야기는 꽤 많이 전해진다. 좌탈입망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탈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곽산 경통(霍山景通)은 들판에 마른 나무를 쌓아 놓고 스스로 불을 붙여 불속에 들어가 앉아 자신의 몸을 태워 입적(入寂)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고행에서 벗어난 붓다



세상 속 경전읽기

㉗ 근본선(根本禪)

"(싯달타는) 스물아홉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 라훌라를 낳은 바로 그 밤에 아내와 아들, 아버지 그리고 권력과 영광을 약속하는 왕좌를 박차고, 가슴 미어지는 이별을 (몰래) 고하였다. 그리하여 인생의 영원한 진리, 속박을 벗어난 지극한 안락인 열반을 구하고자 숲속의 고독한 고행자가 되기로 하였다."
〈The Buddha's Ancient Path By PIYADASSI THERA 에서 번역〉

위대한 출가의 길에 오른 싯달타는 인생고(人生苦) 해탈법을 발견코자 헌신하며, 당시 선(禪)의 대가인 알라라 칼라마(Alara Kalama)와 웃다카 라마푸타(Uddaka Ramaputta)에게 해탈의 방법을 배우고자 하였다. 곧 스승들과 같은 경지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에 도달하였으나, 이것들은 생사해탈의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었으므로 스승을 떠나 홀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가야[지금의 보드가야]의 네란자라강가의 우루벨라에 이르렀다. 우루벨라는 고요한 우거진 숲인데다 맑은 강물까지 있어, 생사해탈을 위한 수행을 지속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콘다냐를 비롯한 5명의 도반들과, 당시 인도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고행을 시작하였다. 몸을 괴롭혀 조복 받아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 것이다. 극소량의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누더기를 걸치고, 가시덤불이나 무덤 사이에서 잠을 청했다. 극렬한 고행의 결과 남겨진 것은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인해 마른 갈대처럼 야위고 부서져가는 몸뿐이었다. 이렇게 6년을 보낸 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나 생사해탈의 목표에는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고행이 무용함을 경험으로 체득한 그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새 길을 모색하였다. 그때에, 어릴 때 봄에 부왕의 선농제(先農祭)에 따라갔다가 자신을 돌보던 시녀들도 구경에 팔려 곁을 비우고, 홀로 갯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명상에 젖었던 기억이 났고, 그 길이 정각(正覺)의 길임을 확신하였다.

극단적 고행과 단식으로 죽음에 이를 지경으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더 이상 정진이 불가능하므로, 수자타의 유미죽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다섯 동료는 싯달타가 고행을 깨고 타락했다고 여겨 실망해 떠나갔다.

초동(樵童) 소띠야에게 쿠사[길상초] 8다발을 얻어 펴고, 피팔라 나무[pippala tree. 후에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菩提樹)'로 부름] 아래서 동쪽을 향해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스승 및 동료 없이 온전히 홀로인 이곳은 감각자극을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을 고무시키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그는 불퇴전의 결단으로 마지막 힘을 쏟아 정진에 몰입하였다.

"피와 살이 다 마르고, 뼈와 가죽과 힘줄만 남을 지라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Pali samma-sam-bodhi]을 얻기 전에는 결단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The Buddha's Ancient Path By PIYADASSI THERA에서 번역〉

어릴 때 경험했던 입출식념[入出息念. 호흡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에 전념하여 초선(初禪)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고, 차례대로 제2선 제3선 그리고 제4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을 닦아내고, 평온한 마음을 과거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숙주수념지[宿住隨念智. 宿命通]로 향해 저녁(오후 6시~10시)에 숙명통을 얻었다. 다시 마음을 사생지[死生智, 天眼通]로 향해, 모든 중생의 업보에 따른 윤회를 살펴, 한밤중(오후 10시~오전 2시)에 천안통을 얻었다. 그리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누진지[漏盡智. 漏盡通]로 향해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四諦)를 깨닫고, 욕루[欲漏. 관능적 쾌락의 번뇌], 유루[有漏. (무엇이 되고자 하여 끌어당기는) 애착의 번뇌], 무명루[無明漏. 무지무명의 번뇌]의 삼루(三漏)를 새벽녘(새벽2시~6시)에 벗어났다. 이와 같이 사선(四禪)의 방법을 통해 깨달았으므로, 이를 근본선(根本禪) 또는 근본사선(根本四禪)이라 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㉓ 닦음의 길 13

사섭법, 중생 끌어당기기

〈四攝法〉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텔레비전이나 SNS 등을 통한 여러 광고는 모두 고객이 물건을 사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물건의 품질만 믿고서 가만히 있으면 고객은 오지 않는다. 불교에서의 전법(傳法)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붓다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산속에만 머문다면 사람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중생들을 끌어당기는(攝)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섭법(四攝法)은 바로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이자 자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섭법은 육바라밀, 사무량심(四無量心)과 함께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이다. 사섭법의 맨 처음은 보시다. 무언가를 나누는 보시는 육바라밀에서도 첫 번째 실천 덕목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무언가를 나누는 일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여러 종교단체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시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애어(愛語), 즉 사랑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개는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열 가지 악업(十惡) 가운데 말과 관련된 부분이 넷이나 차지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거짓말(妄語)과 아부하는 말(綺語), 이간 붙이는 말(兩舌), 험한 말(惡口)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악업에서 벗어나 바르고 정직한 말, 화합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화한 얼굴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신뢰감을 준다. 문수보살 게송처럼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 되는 것이다. 애어는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중요한 덕목이다.

셋째는 이행(利行),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다. 몸(身)과 말(口), 생각(意)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선행(善行)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이에게 이로운 행위를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타인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는가. 나와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행이 나오는 것이다. 이행뿐만 아니라 네 가지 실천 모두 그 바탕에 연기적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넷째는 중생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깨침의 세계로 이끄는 동사(同事)다. 사찰에 가면 법당 벽면에 그려진 심우도(尋牛圖)를 많이 볼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을 10단계로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십우도(十牛圖), 또는 목우도(牧牛圖)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다름 아닌 입전수수(入鄽垂手)다. 시장에 들어가 손을 내민다는 뜻이다. 산사에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가득한 중생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은 것이다. 한국불교의 대성(大聖)으로 추앙받는 원효는 고요한 산사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 속으로 들어가 술집 작부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원효를 존경하는 이유다. 동사(同事)는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천이다.

이웃 종교에 비해 불교 신자들의 연령층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곧 젊은 층의 불자가 매우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을 법당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同事) 고민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愛語)을 건네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利行)이 무엇인지 살펴서 정성껏 나누는(布施)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 이처럼 진심을 다해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섭법은 진심(眞心)이라는 무기로 중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붓다의 길로 이끄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본래 고요 찾은 마음이 적멸보궁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⑭ 신화와 명상



14-1 올림푸스에 산다는 열두 신보다 훨씬 많은 신들이 사는 나라. 매우 서민적인 신들이 사는 가장 인간적인 나라 헬라스. 서양 문명을 탄생시키고 서구 민주주의를 최초로 정립한 그리스의 원래 이름은 헬라스입니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보다 희랍인들에게 더 존경 받은 신 아폴로를 모신 최초의 신전 아폴론은 아고라(시장)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아고라에는 대중 연설의 연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리를 설파하는 철인들에 의해 시민의식이 고양되었습니다. 제우스에 대한 신앙보다 진리를 상징하는 아폴로를 더 중하게 여긴 희랍인들은 인도인들이 그랬듯이 인간 심성의 여러 측면을 신들로 표현합니다. 에게해의 여러 섬에서 탄생한 신들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인간 심성들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지요.

2500년 전에 이미 의족을 개발 사용했고 두개골에는 뇌수술까지 시행한 흔적이 있을 정도로 철학뿐 아니라 수학, 의학을 발전시킨 헬라스의 이성은 신들과 교감을 통해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워 서양의 정신적 모태를 형성하였지요.

14-2 희랍 철학자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을 꼽으라 하면 디오게네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을 배워 스승 사후에도 훌륭한 철인들을 지원하는데 하루는 그를 찾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아고라 광장 한 구석의 항아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 마케도니아에서 찾아 온 대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펼칠 기회, 공간 등을 원함직했으나 철인의 대답은 의외였지요. "해를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자신이 태양이고 태양의 아들이라 여기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디오게네스이기에 스승이라 할 수 있지요.

달마대사에게 당시 도교의 풍토에서 불교를 신봉하고 사찰과 불상 조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국의 황제(양무제)가 질문합니다.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묻자 달마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無)!"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었으며 달마대사는 양무제에게 무엇을 일깨워주었을까요?

14-3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신전도 제우스가 아닌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모시는데 아테네의 언덕에 서 있습니다. 파르테논이 1호 자리를 차지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인간의 피와 땀을 강요받아 지어진 것인데 반해 아테네 시민들의 자발적 노동의 제공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30년 간 매년 실시하는 도편투표에서 90%이상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페리클레스의 덕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보답이라 합니다. 헬라스인들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소피스트들이 지식을 팔아 축재한 것과 달리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리스는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대화와 토론으로 교육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금언은 '너 자신을 알라' 이지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금언이 있습니다.

"나는 한가지 밖에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는 사실을"

시민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던 그가 뭘 모른다 하였을까요?

공자는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니라."

현자들의 생각이 동서를 떠나 이렇게 같을 수 있다니 경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인간 내면의 보편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4-4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공인받기까지 300여 년 동안 받은 박해와 수난의 자취가 터키 카이막길 지하 동굴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국교로 공인된 이후 삶이 안락해지자 오히려 신앙이 퇴락하는 것을 보고, 사막에서 수도자들이 금욕적 수행을 하게 되는데 카파도키아의 사암 동굴에 숨겨진 교회들에는 이들 수도자들의 담백하고 절제적인 공동체 생활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갖은 욕심을 채우려들 때에 외화내빈이 되어 기성 종교는 형해가 되고 맙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기 짝이 없는 성소피아 성당(지금은 모스크)과 사암 동굴의 알려지지 않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의 대비처럼, 우리의 밝은 본성을 흐리게 하여 바른 지혜를 어둡게 하고 맙니다.

> **자신을 알라는 동서 격언**
> **자신 돌아보는 명상 닮아**
> **영적순례로 마음평화 체득**

고난은 영적 본성을 맑게 하고 안락은 속물 근성을 키우는 것은 동서 구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히우고 내면을 응시하며 하루 저녁 정도 절식을 하고 한 달에 1박 2일 집중 명상을 해보는 것은 외면적 생활 일변도의 현대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일 것입니다. 마음속의 갖가지 욕망들을 관조하여 준동치 않게 하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4-5 마음이 극도로 괴롭거나 불안할 때 종교를 찾지만 더 절박하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습니다. 불확실함에 대해 과민 반응 때문이지요. 드물게 정신적 순례의 여행을 떠나거나 심리치료자를 찾습니다. 대부분은 외적 구원에 매달리거나 이도저도 아닌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기도 합니다.

내담자들은 심리치료자가 주술사나 점쟁이처럼 뭔가 시원한 해답을 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습니다. 상담자 또한 불안과 우울에 싸여있는 이들을 보고 뭔가 해주려 하고 보답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넘어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지요. 이미 그에게 갖추어진 자각과 치유의 능력을 간과한 것입니다. 마치 전능한 자가 피조물에게 은사하듯이 심리치료도 치료자의 능력으로 환자를 고치려든다면 치료는 암초에 부딪치거나 부작용에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14-6 고통의 상황은 정신적 영적 성숙의 기회가 왔음을 뜻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행복의 길로 열심히 뛰었건만 무엇이 결여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찬찬히 돌아볼 기회인 것이지요. 심리치료자는 고통의 무의식적 메시지를 잘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입니다. 서둘러 해석을 하다가는 주입식 교육이 되어 통찰 대신 지식만 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려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려 들거나 현실(고통)에 안주하여 순응하려 합니다. 이러한 환자를 새로운 상황-자립과 성숙-으로 안내하는 길은 그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의 모든 표현을 공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요. 서두르지 않고 경이로운 눈길로 주의 깊게 지켜보되 환자 스스로 자신을 잘 보고 해결책도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 주는 치료자의 태도를 통해 환자는 부모나 세상에 투사했던 불만과 원망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신도 별로 해줄 게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채우며 나아가게 되지요. 디오게네스나 달마처럼 직접적 답을 주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큰 울림이 현대에도 필요합니다. 알렉산더나 중국 황제들처럼 온갖 부귀와 권력으로도 부족하여 이웃나라를 정벌하여 대제국을 만드는 노력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요?

서산 대사는 그런 영웅호걸들을 개미와 같고 그들이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궁성을 개미집과 같다 하였지요.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 감정과 생각을 가다듬고 잘 가꾸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내는 일이 가장 수승한 일이군요.

14-7 연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가 이슬람의 성경인 쿠란을 소각하는 쿠란 화형식을 단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쿠란이 악마의 경전입니다. 바이블은 쿠란보다 훨씬 전에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는 정의의 심판을 하였다고 자신합니다. 무슬림들의 규탄 시위는 유혈사태로 번졌습니다. 종교적 테러가 그치지 않습니다. 수용 대신 배타가 사랑 대신 증오가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하는군요. 한쪽의 행복이나 평화가 다른 쪽의 불행과 비탄이라면 참된 행복이요 평화라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느님을 신봉하는 형제들이 극단의 대립을 거듭하고 예수 사랑이냐 무하마드 사랑이냐로 싸우는 모습은 참 종교인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14-8 붓다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씀과 행위(신앙을 포함한)가 선하고 건전한 면을 늘리는지 악하고 불건전한 면을 늘리는지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불문율이나 경전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말한 것이라도, 심지어 신의 계시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되며 자신에게만 이롭고 행복한 것이라면 과연 선하고 건전한 것인지를 자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욕망의 도적이 마음 들판을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방관할 것인지 지켜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바탕에 지혜의 빛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위장된 행복과 평화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믿음이 최선이며 최고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욕망에 대한 성찰이 없는 기도나 명상은 진정한 구원이나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함을 쿠란 화형식은 일깨워줍니다.

14-9 명상은 신령스런 그 무엇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 함은 신비한 체험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의 욕망과 분노, 무지를 성찰하고 깨달으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보다 밝고 선한 마음 상태로 거듭 태어남이지요. 내면의 순례(명상)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이 길은 밖으로 치달리는 마음을 쉬고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본래 고요를 되찾으면 내면은 자비로 충만한 곳이자 고귀한 깨달음의 빛이 있는 적멸보궁(성전)이 되지요.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덕천사
- 주 지 : 혜 선 (속명 : 한진선)
-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1길14-2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바로잡습니다

- 사찰명 : 서봉사
- 주지명 : 명 음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34(이천동 439-2)

2020년 7월 8일자 현대불교신문에 게재된
① "탈종 공고"는 "가등록 취소 공고"로
②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는 "위 사찰은 가등록을 취소함을 공고합니다"로 바로잡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1호 | 15 | 전면광고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만이 남아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사십이장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그린그린 및 심리상담치유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증, 철학박사학위증, 심리상담치유자격증 2011-12-82948호 / 사업자등록번호 576-10-00995호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 불면증 / 스트레스 및 화병 / 우울증 / 조울증 / 노인및 건망증 클리닉 / 여성및 갱년기클리닉 / 소아청소년상담 / 부부상담 / 정신장애 / 두통 / 빙의
* 치매상담후 한달이내 완치 *
010-4866-8055 / 061-852-1003

사궁이택타 주합름일로

당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바로전화주세요.
** 전화상담 가능 **
02-927-2683

입종 동참안내

*****
부처님의정원·사암·포교원 선원·불교문화원·종단 단체·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대중스님 후원봉사하실 신도님 기다립니다.
010-3928-7083
055-382-7083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법 공개 강의 대방광불화엄경 진실의 진의를 밝힌다

*****
7월 18일 토요일 10시
충남 연기군 전의면
청용사 010-9150-104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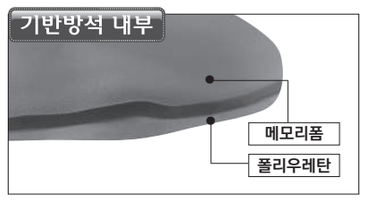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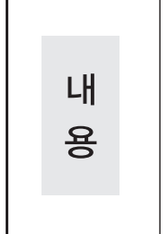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1호 | 16 | 전면광고

잠만 잠으로써 나날을 아무 소득 없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덧없는 불길이 온 세상을 불사르고 있음을 생각하여 빨리 자신을 구제해야 할 것이니 부디 깨어 있어라.



부처님 말씀 읽기 -《유교경》에서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0-3162-3376

사찰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교원안내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 부근3층
●약 50평, 방3개, 옥상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금 약간

010-2074-6825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포교원안내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법당, 요사, 접견실, 나한전, 차고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안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 50평 ●요사 : 65평
●대지 : 5백평 ●임야 : 4천평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안내

●위치 : 최신식 임법당. 경남. 아주 위치좋음. 선전최고위치 궁궐 꽃도량. 신도많음. 스님. 무속인 환영. 최고 위치좋음.
●건평 52평. 대지 200평 정도.
●앉아만 있어도 돈 들어오는 최고 요지.
●가액 삼억 팔천 절충 가능.

010-4137-1328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평수 : 대지 80평, 건평 약230평,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4층 : 주인세대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모두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47평 최신설비 불단조성, 종무소 스님방,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매매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 포교원 경영하면서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생활편리 주변 문화시설 대형마트
●급매가격 : 7억 5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4천만원

010-9011-7230

사찰안내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주차장 확보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기도(터)안내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남밀양IC 10분거리 초동
●토지 1136평 관리지역
●가액: 1억5천(은1억4천 포함)

010-9906-3631

사찰안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가액 : 5억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포교당(급)안내

●위치:경북 포항시 오천
●2층(60평)전체
●삼존불, 탱화, 소불
●완전 현대식 수리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좋은사찰안내

●위치 : 서울도심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가액 : 25억 (대출가능)
●별채빼고 양도가능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171번지 버스종점 옆
●스님의 50년된 암자
●약10평정도 텃밭 있음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이 등록된 집이라 명의 이전됩니다.
●스님이 호주 이민관계로 양도함
●매매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010-5399-1225

인천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역세권 (도로인접 2층)
●평수 : 50평, 도시가스 (접근성 양호)
●재래시장 인근,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042-4245

대형사찰 급매

●위치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 5분거리
●총면적 : 20,496㎡
●가액 : 15억(대출금5억포함),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 (창원의창, 내곡지구 경계 땅값상승, 땅값만 20억 상당)
●5억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분할납부)
●10,000㎡ : 대형 대웅전 최신 단청완료 문화재급 단청 원목시공
●사찰불상 최고급, 탑, 모든 종교시설 일체
●10,496㎡ : 납골당및 전원주택 일부 개발
●사회복지원및 타 용도 일부 가능함
●사찰앞 토지까지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중

010-9647-0723

사찰안내

●위치 : 부산 연제구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대지 100평. 법당 25평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150-2284

아주오래된 전통암자 안내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종교용지, 등기 900평(1천평 사용)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신도있고 공원같이 아름다운 암자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합니다.
●1억 5천 안고 3억 3천
●합 4억 8천(절충가능)

010-3535-7906

토굴안내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찰안내

●문화재사찰
●위치: 부산 최고의 바다전망
●대지500평, 임야3600평
●법당 산신각 천불전 요사체
●가액 23억
●스님건강상 매도

010-2104-2040

좋은법당안내

●위치 : 일산서구 큰도로 정류장앞
●평수 : 약50평, 삼존불 모심
●전세 1천만원, 월세 60만원
●인수품목 : 45인승 버스1대, 외제차 1대(승용차), 도서문구 5천권, 야외발전기 1대, 야외공영 엠프시설 일체, 방송장비 일체, 방송허가 득
●본인 건강때문에 인연 닫는문께 양도
●전세포함 인수금 4천300만원

031-925-5151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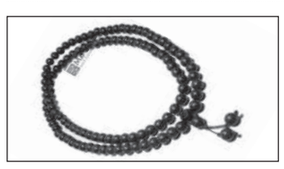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부처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오늘은 우리 인간이 모든 식물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도량에서는 항상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건만 그 살생은 살생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그것이 한 진리요, 삶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괴로움도 없고 쓸쓸한 마음도 없고 또 고독한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자에 자기가 잘못해서 지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할 텐데, 자기가 괜찮았을 때를 생각하고 아주 호의호식할 때를 생각하기에 지금 가난하거나 또는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데 자식들은 있고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바탕을 삼고 거름을 삼아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자기 생각으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건 아닙니다. 업보나 운명도 물론 자기한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한 거고 자기가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딴 데다 원망을 하고 딴 데 부담을 주고 딴 데를 성가시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를 생각할 때 하나도 남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다못해 먹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수많은 밥과 반찬 또 간식으로 실과들 또는 어떤 땐 육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먹을 때 그거는 생명이 없던가요? 그것도 생명이 있고 피가 있고 마음이 있고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그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진정으로 진실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실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먹는다, 반찬을 갖추어서 먹는다 또는 때에 따라서 몸이 좀 이상하면, 먹고 싶다 하면 육식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 또한 생명, 피, 살,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줄 아시지만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치듯이 그것들도 여러분한테 다 송두리째 바칩니다. 바쳤을 때 그, 바친다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낮은 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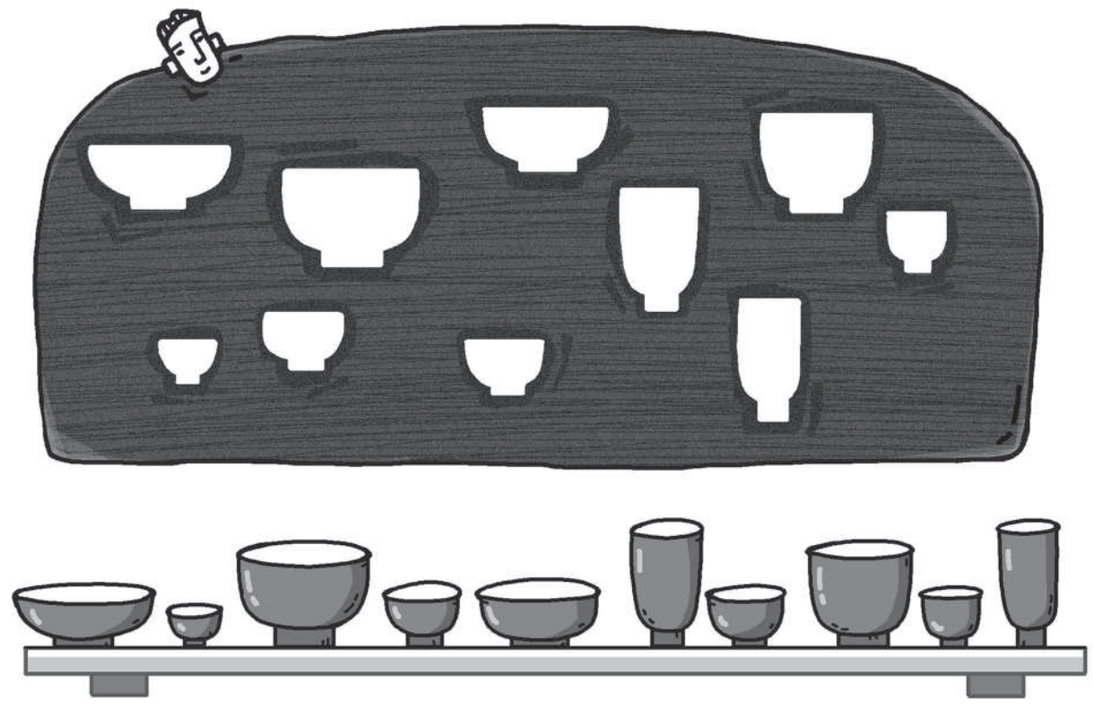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 관계상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야, 먹었더니 배부르고 참 흐뭇하고 좋더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움이 거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남을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밟고 일어설 수도 있고 또는 남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남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는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는 반면에 하다못해 참외 하나를 깎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몸뚱이의 내 중생들이, 바로 나를 형성시켜 놓은 나의 그 중생들이 이 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자기는 운동을 해 주는 그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먹습니다. 뭐, 배가 고프면, 사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문제지마는, 도둑질을 안 하더라도 그것도 엄연히 생명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과 더불어 내 살이요, 내 생명이요, 내 피요, 바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이롭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게 합류화돼서, 바로 나로 인해서 그 식물도 모두 다 융합이 돼서 한 사람의, 즉 말하자면 무주상으로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도 식물이나 그런 것은 다 진화돼서 나와 더불어 바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보고,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꽃이 우리 인간의 노예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예지마는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웃으면 꽃이 핀 거와 같고 우리가 늙어서 찌부러지면 이것도 스러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도 업신여길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전부터 얘기해 왔지마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형성시켜서 나온 그 주인을 자기가 업신여겨서도 아니 되지마는 모든 식물 이 자체를 먹는 데도 둘로 보지 말고 자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을 놓거나 간식을 먹거나 할 때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감사합니다' 하는 걸 진실로 느끼고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서 남의 살과 남의 피를 배불리, 배가 넘치도록 먹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살과 피를 그대로 그냥 많이만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중도로서 마음을 항상 향기롭게 두고 겸손하게 두고, 하다못해 그거를 하나 깎더라도 '이것이 바로 내 살이요, 내 마음이요, 내 피가 아닌가.' 그것을 일부러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 번 음미해 볼 수 있다면 전체 우리가 살림살이할 때 그것이 다 그렇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자기의 모든 이 중생들이 이 안에 들어서 자기를 크게 인간으로서 형성시킨 것처럼 그 식물도 다 거기에 융화가 돼서, 다 인연이 돼서 역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육식도 그렇습니다.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을 때는 둘이지마는 내 살과 내 피, 내 마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석에서 바로 인간으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기복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는 한 길이요, 한 진리요, 한 벗이요, 형제 아님이 없는 것이요, 사랑 도의 의리,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존엄성 있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폭이 넓고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무(無)의 세계 50%, 유(有)의 세계 50%를 맞쥐고서 내가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모두가,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먹어 치우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똑같이 둘이 아니게 볼 수 있으니…. 그 섬기는 마음은, 자기를 송두리째 바치면서도 그 섬기는 마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이 몸에 들어가도 스스로서 살이 되고 스스로서 좋은 피가 돼 주고 그렇게 체하는 법도 없고 그렇게 이 몸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거죠.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들이 모두가 인간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마는,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은 스스로서 지혜가 쩔고 물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으로만 그렇게 가고, 이것이 모든 살아나오던 집착에 의해서 그 그릇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일체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신이라면 신이 많아서 신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 각자의 자(自) 신(神)이 있습니다. 자 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쩔고 무의 세계의 뜻을 모르지마는 당신들의 여러 신이, 바로 자신이 자기를 이날까지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왔는데 그 뜻을 몰라서 욕심이 앞서고 집착이 앞서고 애정이 앞서고 이 삼독이 앞서고 있기

☞ 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 ~ 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지혜롭게 문제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1일차 (9월 10일 목)	2일차 (9월 11일 금)	3일차 (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10월 10일(토) ~ 12월 12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때문에 물질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물질이라면 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돈을 벌어야만 하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욕심을 내서 끼어야만 하고 가져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고 써야만 하고 자기 걸 만들어야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을 가려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이날까지 진화시켜서 끌고 나온 그 주인의 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불 노승을, 즉 말하자면 자기 나오기 이전 자기 자불 노승을 몰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자기 부모를 모를세라 하고 나만 먹고살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거나 똑같이, 비유하건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각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의, 그 자기의 스승이며 자기의 아비며 자기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주인에 의해서 제자인 것이요, 자기 주인에 의해서, 불가로 치면 시자인 것이요, 또 기독교에서 말하면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자불 노승하고 둘이 아니어야 하는가? 가만히 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마차가 굴러가는 걸 보십시오. 옛날에는 마차가 다녔기 때문에 마차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차로 비유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심봉이 양쪽에 꽂히지 않았다면 절대 바퀴가 올바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심봉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지배자인 한 신입니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 각자 누구나가 바깥에 끄달리지 말고 바깥에서 찾지 말고 바깥에서 원하지 말라. 안에서,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원자력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구하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을 거기에서 찾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서 모든 해결을 하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참맛을 알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의 노예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유스럽게 산다고 하지마는 자기가 묶여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에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데마다 창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것을 안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서 훌쩍 벗어난다면 바로 자기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나 로보트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노예로 삼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일체가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디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로보트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로보트의 정신력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등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말했죠. 새로이 새 언어로 얘기를 해 보면, 오신통을 컴퓨터니…, 항상 얘기하죠. 여기 안 들은 분이 있으면 들으시라고 다시 재차 얘기를 하건대 우리가 자유스럽게, 영원한 자기의 주인공에 의해서 스스로 있는, 영원히 있는 그러한 망원경이나 컴퓨터나 탐지기나 또는 천체무전통신기나 책정기나 또는 영사기 이런 것이 자기한테 그냥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이 동시에 있는, 이 굴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이치가, 바로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물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떡하면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할 수 있나 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되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수십 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거는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의식으로 통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도 너와 같아.' 하되 그것이 사랑과 의리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나가는 거, 한번 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막 치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만들어 놓은 데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 죽고 산다 하는 것은 자유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항상 그걸 둘로 보지 않게끔 사용을 한다면 절대로 망하는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흥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로보트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그 상대성 원리가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그러는 것도 둘이 아니지마는 여러분의 자성과 지금 심봉과 굴레바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그 모두를 만들고 써도,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어떠한 것을 한번 누르면 이 세상이 다 타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의 마음의 조작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인간의 마음 한생각이면 좌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좌우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융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데 그 오신통의 문제만 가져도 우리가 한생각을 내서 대의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나라가 독재적인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조절시켜서 다 이 세상이 평화스럽게 될 수 있는, 좀 다져 줄 수 있는, 요량 있고 지혜 있고 그렇게 조금 유동성이 있게끔 공산주의도 좀 더 융화를 시키고 반체계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세워서, 그 해이하고 약한 마음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쪽은 또 너무 센 거는 조금 줄이고 우리는 조금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합류화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자리가, 호국 불교가 따로 있고 호국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생각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생명들을 융화시킬 수도 있고 참답게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생각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생명들을 융화시킬 수도 있고
참답게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청소년들을 기르면서도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둘로 보지 않고 나의 원자력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대로, 내 전화가 있으면 내 전화에서 돌리면 바로 걔한테도 갑니다. 그럼으로써 말없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도 그 애를 잘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더 가난치 않게 할 수 있고,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또 팔자 운명이, 그런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팔자 운명을, 자기네들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팔자 운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또 비약적으로만 나가고 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야만, 언제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죠. 절간에 가서 칠성이다 산신이다 용왕이다 이렇게 붙여 놓은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엄마가 됐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누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동생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되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고정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이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살아가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그 작용을 하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천만 가지 만만 가지, 아니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마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을 잘 쓰면 잘될 것이고 잘못 쓰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그렇게 잘 듣고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옳은 말이라면 자기 거를 만들어서 양식을 삼고 또 옳은 말이 아니라면 바로 떨쳐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 내 마음의 주인공에 의해서 믿고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항상 순조롭게 나가면서, 겸손하게 나가면서, 남의 생명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명과 똑같이, 하다못해 올챙이의 생명이라도, 바로 나도 과거에 올챙이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애당초부터 사람으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과거의 나인 것이고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았다면 바로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저께가 둘이 아니요, 오늘 자체가 영원한 것이니까 오늘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신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게 되니 그 지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으로 조작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지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이런 공부를 하나?' 이런 것도 좀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빨리 해야지.' 하는 것도 거기다 맡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열쇠와 자물쇠를 다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중략)

또 자기가 이 몸을 벗는다고 그래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전에도 재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옷을 벗고 진화하는 거지 그건 죽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몸도 허무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2상이 구족하고 62견이 구족하고 80종호가 구족하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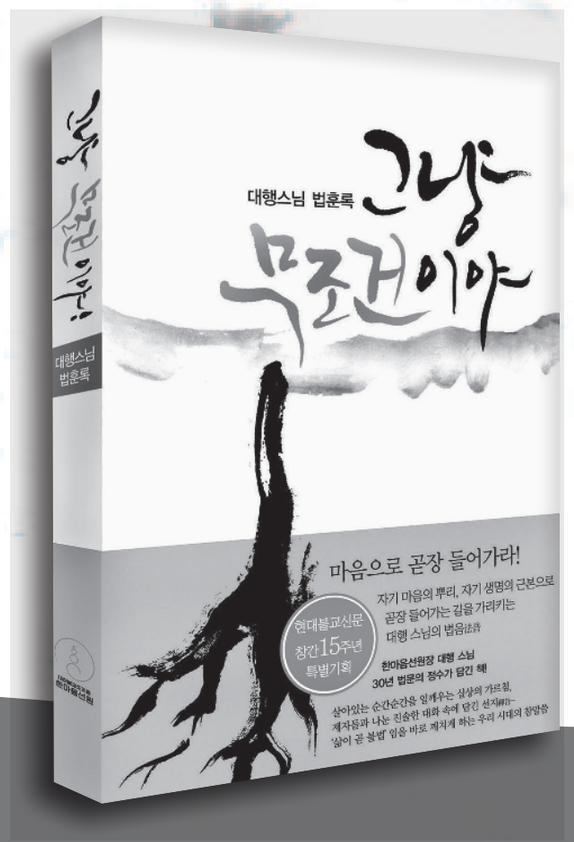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인간까지 돼 올라온 것도 조그마한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라 하면 부처 될 수 있는 가망이 90%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선장이라면 잘 끌고 나가셔야 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도 잘 끌고 나가게 돼서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가정이 건강하고, 좀 폭이 넓어지니까 모든 우환, 가환, 병고 액난이 다 무촉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얻다가 빌어야만 하겠습니까? 얻다가 빌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고서 이 세상이 났고, 자기가 있고서 상대가 있었고, 자기가 있고서 자식이 있었고, 자기가 있고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빼놓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딴 데서 물질적으로 발전소를 만들어 놓는 거는, 때에 따라서 전기가 나가면 전깃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자가발전소는 아무리 전기가 꺼졌다 하더라도 항상, 바로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밝습니다. 저 태양과 같이 밝으면서도 이 마음의 밝음은 땅속까지도 밝혀 줄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온 천하의, 온 세계의 어떠한 중생들이라도 다 밝혀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7월 19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용감한 바둑이



우리 집 바둑이가 늑대와 싸운다

날렵한 바둑이가 늑대 눈탱이를

먼저 물었다

늑대는 발톱도 크고 이빨도 무섭다

그래도, 바둑이 꼬리를 봐라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

싸움은 안 봐도 알겠다

늑대가 꼬리 내리고

내빼고 말았을 거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암각화는 돌이나 금속의 뾰족한 끝을 이용하여 긋거나 쪼아서 외곽선을 만들고, 갈거나 쪼아 파내거나 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완성한다. 청동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돌을 이용하여 암각화를 새겼기 때문에 윤곽선이 굵고 투박하다. 그러나 투박한 가운데에서도 각 사물이 지니는 성격과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관찰이 예리하고 수많은 반복과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장인이 있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 그림에서도 늑대의 발톱과 주둥이 그리고 개의 꼬리가 치켜 올려진 각각의 특징을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숙련된 솜씨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늑대와 개가 싸움을 하는 단순한 그림일까? 아니면 다른 뜻도 있을까? 혹시, 그 집에 늑대가 자주 출몰하니 개가 늑대를 이기는 그림을 그려 놓아서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적(符籍)과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늑대가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고 늑대와 맞서는 용감한 개가 있었는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저세상으로 떠난 용감한 바둑이를 기념하는 기념비일까?

용감한 바둑아! 요새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 귀신을 만나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단다. 제발! 코로나 좀 물어 가다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⑭ 철웅 스님

그리운 유쾌, 상쾌, 통쾌 법문



〈서신 1〉
대원성께
옥서(玉書)와 사진 잘 받았습니다. 사진 솜씨와 재조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남녀 간에 못나고 평범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테이프가 이상이 있는 것은 전부 가져오시면 꾸짖고 나무라고 해서 작품을 더 잘 만들도록 하고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충고는 귀에 담았습니다.
회원들께 안부 사뢰시고 건강하시길 비나이다. 이곳은 유월의 연하(煙霞) 속에 매미소리가 한창입니다.

〈서신 2〉
대원성께
옥서(玉書) 잘 수견(受見)했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시니 산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전암 주.



걸보기에 엄격했지만 안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철웅 스님.

철웅 스님이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 계실 때였다. 연꽃모임 야외법회를 가게 되었다. 당시 스님은 여러 가지로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쉬운 말로 인기가 최고였다. 스님을 뵙기 위해 전국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스님이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님의 법문 때문이었다. 스님의 법문은 책 속에서 온 법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온 법문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기기도 했던 스님 특유의 법문은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왔다.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문들이었다. 빡빡한 세상살이에 찌든 마음이 말끔히 청소되는 스님의 법문은 유쾌, 상쾌, 통쾌해서 법문 내내 실컷 웃으며 듣는 법문이었다.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 대중도 스님의 법문에 금방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코 법문의 결론은 가볍지 않았다. 선지를 품은 선어들이 등장할 때면 법문은 더 없이 깊고 깊었다. 금방이라도 한소식이 잡힐 것처럼 마음이 깊어지곤 했다. 그야말로 선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기골이 장대했던 스님은 겉으로 보기에 엄격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나는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스님마다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고, 스님의 독사진도 찍었는데, 스님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셔서 싫은 내색 없이 응해주셨다. 덕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스님께 편지를 올릴 때면 스님의 사진들을 함께 보내드리곤 했다. 스님은 그때마다 늘 따뜻한 답장을 주셨다. 재주가 많다며 덕담에 유묵까지 보내주시기도 했었다. 직설화법의 법문과 카리스마에 스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대중도 있었지만 안으로 따뜻한 정을 품고 산 스님이었다. 또한 농담처럼 던지는 가벼운 말에도 선지가 있었고 자신의 화두가 확실했던 선사였다.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뵐 때마다 가슴에 선명하게 남는 선지식이었다.

연꽃모임이 초창기였던 당시에는 우리처럼 젊은 불자들이 많지 않을 때여서 연꽃모임이 스님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으며 신행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큰스님들과의 인연 덕으로 연꽃모임도 잘 키우고 행복한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또 다른 모임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 철웅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지금도 사진 속의 스님을 뵐 때면 그 날의 기억들이 따뜻하게 일어난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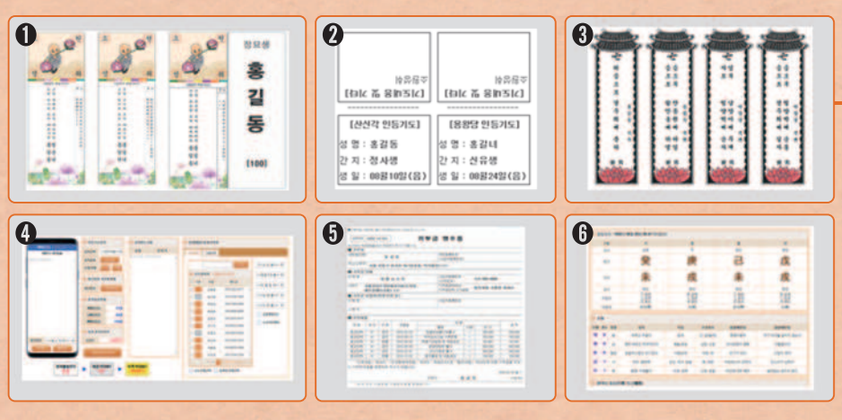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김영사

TEL: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진 정 한 나 를 찾 아 가 는 전 생 리 딩 이 야 기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제의 신간

전생을 읽는 신비한 능력. 단 1분이면 당신의 전생 정보를 읽어들인다.
전생 읽는 힐러 박진여의 당신을 위한 전생 리딩 이야기

지금의 불행과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당신의 전생에 연결되어 있다. 전생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가?

플라톤은 인간이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넘으로써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며, 영혼은 불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생을 보고 삶의 지난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한 저자의 경험은 놀랍다. 입증된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열린 마음을 가진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_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명리심리학》 저자**



박진여 | 단 1분 만에 상대방의 전생 정보를 읽어들이는 전생 리딩 상담가. 20년간 CEO부터 정치가, 학자, 의사, 성직자 등 2만 명의 전생을 읽고 상담해왔다.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8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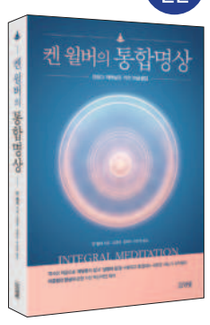
박진여 지음 | 284쪽 | 12,800원

원인도 해법도 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 선생의 진정한 삶을 위한 메시지. 지금 당신의 문제는 지금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닐 수 있다. 사랑, 결혼, 건강, 직장, 가족과 인간관계,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간관계와 선택의 기준, 삶의 목적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책.

성장의 길 vs 깨달음의 길
통합 마음챙김Integral Mindfulness 안내서

화제의 신간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해석
동양의 '깨달음'과 서양의 '발달 및 진화' 이론을 통합하는 최초의 시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탐구 기법인 마음챙김을 재해석한 제3의 방법 '통합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한다.



켄 윌버의 통합명상
켄 윌버 | 김명권·김혜옥·박윤정 옮김 | 352쪽 | 15,800원

앉아만 있는다고 깨칠 수 있는가?
21세기에 최적화된 깨달음의 길, 간화선看話禪

4쇄

화두를 통해 깨침에 이르는 과정과 원리를 밝히다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공부하는 사람이 단번에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여 '답만 찾도록 집중시키는' 데 있다. 활구活句와 사구死句의 구분, 의심疑心이 익어서 의정疑情·의단疑團이 되었다가 마침내 화두가 타파되기까지의 수행과정별 특징과 병통, 해결법 등 간화선의 요체와 구체적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밝혔다.



간화심결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수불 | 284쪽 | 13,800원

금강석 같은 지혜로 분별망상을 자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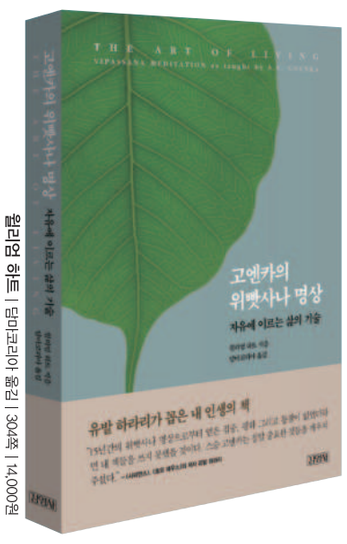
"아침저녁 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_백성욱
백성욱 박사가 현토를 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본 등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하여 교정한 독송용 금강경. 의미 단위로 토를 달고 띄어쓰기를 하여, 독송하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전 2권)
한문본, 한글 한문 혼용본 | 김강유 엮음 | 64쪽 | 9,600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호모 데우스》를 탄생시킨 그 책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법 한국 최초 정식 출간



자유에 이르는 삶의 기술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전 세계 25개국 스테디셀러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의 생생한 가르침을 책으로 읽는다

"저는 하루 두 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위빳사나 명상을 통해 얻은 집중과 평정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책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옥스포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고엔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그 이후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_유발 하라리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의 저자**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 다니엘 인그램 엮음 | 김용환 옮김 | 304쪽 | 14,000원



S. N. 고엔카 (1924~2013) 세계적인 위빳사나 명상 지도자. 31살에 위빳사나 명상과 만나 스승 우 바 킨 곁에서 14년 동안 수련하였다. 종파에 치우침 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그의 열린 마음은 다른 종교, 배경, 계층, 성별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고엔카의 위빳사나 10일 코스
윌리엄 하트 엮음 | 담마코리아 옮김 | 216쪽 | 11,500원

달라이 라마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고백



심리학과 과학의 질문에 행복이 답하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352쪽 | 12,800원

종교의 한계 너머, 자비의 실천방법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 이현 옮김 | 248쪽 | 13,500원

틱낫한 스님의 깨어 있는 삶의 예술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는 지혜
오늘도 두려움 없이
틱낫한 | 진우기 옮김 | 224쪽 | 12,000원

스님의 대표 저작과 강연의 핵심 모음집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 | 류시화 옮김 | 289쪽 | 12,000원

불교출판문화협회 올해의 불서



니까야 전체를 주제별로 한 권에 정리한 역작
수트라: 여시아독 개정판
비구 범일 | 양장 | 528쪽 | 29,000원

선불교의 핵심 공안 100개와 그 풀이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만송 행수 편저 | 혜원 역해 | 양장 | 504쪽 | 21,0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박사의 일화와 가르침 모음
백성욱 | 김원수 엮음 | 225쪽 | 10,000원

인식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 연기법을 입체적으로 탐구한 문제작
신용국 | 양장 | 608쪽 | 28,000원

흔적 없이 나는 새
쉽게 풀어쓴 황벽선사 〈전심법요〉 선해
수불 | 604쪽 | 25,000원

선심초심
미국에 선 수행의 돌풍을 일으킨 스테디셀러
스즈키 순류 | 정창영 옮김 | 258쪽 | 13,000원